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7)<sup>1)</sup>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 I. 북미

### [미국]

#### 1. (2020년 10월 7일자)미국 농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제2탄을 공표

2020년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농무부(USDA)의 퍼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의한 시장 혼란과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 생산자에게 최대 140억 달러(1조 4,840억 엔=15조 4,586.6억 원, 1미국 달러=106엔=1,104.19원<sup>2)</sup>)이 되어 제2탄의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CFAP2)을 공표했다.

5월에 공표된 CFAP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손실이 지급 대상이 있었지만 CFAP2에서는 4월 16일 이후도 지불 대상으로 대상 기간이 갱신되어 대상 농작물도 확대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다. CFAP2에서는 CFAP의 직접 지불과 마찬가지로 곡물, 가축, 채소나 과일, 유제품, 수산물, 기타 작물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품 신용 공사(CCC)현장 법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 안전 보장 법(CARES Act)의 재원을 사용한다.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5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2) 2020년 11월 27일 원/달러 기준 환율 적용

**[대상 작물에 대한 지급액]**

CFAP2의 대상 작물은 다음의 3종류로 나뉜다.

**1) 트리거 가격 작물 - 축산물**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기간과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미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5% 이상 하락한 주요 작물 및 축산물.

**· 옥수수, 밀, 콩 등**

보리, 옥수수, 사탕수수, 콩, 해바라기, 립치와타, 밀 등에 대한 지불액은 2020년의 작부 면적에 의거하여 산출되지만, 경작 포기 농지와 시험적인 경작지는 대상 외가 된다. 지급액은 다음 중 큰 편이다.

- (1) 1에이커(4,047㎡)당 15달러(1,590엔=16,563원)을 대상이 되는 작부 면적에 곱한 금액.
- (2) 대상이 되는 작부 면적에 작물별의 전미의 작물 매매 비율과 단위당 지급액(표 1) 및 2020년의 생산 이력(APH)에서 승인된 생산량을 곱한 금액. APH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19년의 카운티 베이스 농업 리스크 보상 프로그램(ARC-CO)<sup>3)</sup>에 있어서 대상 작물의 표준 수확량의 85%가 적용된다.

표 1 트리거 작물에 적용되는 매매비율과 단위당 지불액

작물	단위	매매비율(%)	지불액	
			미국 달러	엔화 환산
보리	부셀	63	0.54	57.24
옥수수		40	0.58	61.48
립치와타	파운드	46	0.08	8.48
사탕수수	부셀	55	0.56	59.36
콩		54	0.58	61.48
해바라기	파운드	44	0.02	2.12
밀(모든 종류)	부셀	73	0.54	57.24

자료: USDA

**· 육용 닭과 계란**

육용 닭의 지급액은 2019년의 식용 닭의 생산량의 75%로 1마리당 1.01미국 달러(107.06엔=1,115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년에 사육을 시작한 생산자 및 2019년에 생산 실적이 아닌 생산자에 대한 지불액은 신청 시점에서의 2020년의 생산량을 근거로 산출된다.

3) ARC-CO(Agriculture Risk Coverage-County Option):ARC는 해당 년의 생산자의 수입이 보장 수준을 밑돌았을 경우에 그 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이며, CO는 카운티의 실수입액이 미리 설정된 금액을 밑돌았을 경우에 보상을 한다.

계란의 지급액은 2019년의 계란 생산량의 75%에 단위당 지급액(표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년에 사육을 시작한 생산자 및 2019년에 생산 실적이 아닌 생산자에 대한 지불액은 신청 시점에서의 2020년의 생산량을 근거로 산출된다.

또한 계약 생산에 따른 가격 위험을 갖고 있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2 계란의 단위당 지불액

작물	단위	지불액	
		미국 달러	엔화 환산
난각있는 계란	12개	0.05	5.30
액란	파운드	0.04	4.24
건조분란		0.14	14.84
냉동액란		0.05	5.30

자료: USDA

#### • 유제품(우유)

우유에 대한 지불액은 이하의 (1)과 (2)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9월 1일보다 전에 폐업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된다. 또 2020년 9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추정 원유 생산량은 일당으로 산출된다.

- (1) 2020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실제 원유 생산량에 100파운드당 1.2미국 달러(동 127.2엔=1,325원, 1kg 당 2.8엔=29.17원)를 곱한 금액.
- (2)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22일)의 추정 원유 생산량(동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산출된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에 122를 곱한 값)에 100파운드당 1.2미국 달러(동 127.2엔=1,325원, 1킬로그램 당 2.8엔=29.17원)를 곱한 금액.

#### • 가축(육용우, 돼지 및 새끼 돼지 새끼와 양)

대상이 되는 가축에 대한 지불액은 2020년 4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산자가 선택한 날의 최대 사육 마릿수에 대해서 상품신용공사(CCC)현장 법의 납부율을 곱한 금액(육용우: 1마리당 55달러(5,830엔=60,730.5원), 돼지 및 새끼: 1마리당 23달러(2,438엔=25,396.4원), 새끼와 양: 1마리당 27미국 달러(2,862엔=29,813원)이다. 다만 종축은 대상 외이다.

## 2) 정액 작물

알팔파, 초장섬유면, 귀리, 땅콩, 쌀, 마, 기장, 겨자, 잇꽃, 참깨, 라이보리, 유채 등은 5% 이상의 가격 하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작물 또는 가격 변동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작물이지만, 2020년의 대상 면적에 1에이커당 15미국 달러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3) 매출 작물 축산물

채소나 과일, 수산물, 모판 작물 화훼, 트리거 가격 작물 및 정액 작물이 되지 않는 담배, 트리거 가격 축산물이 되지 않는 염소 젖, 밉크(가죽을 포함), 모헤어, 울 및 식품 섬유, 모피, 깃털 때문에 사육하는 기타 가축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2019년 매출 범위(5단계)에 맞추어 정해진 납부율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표 3).

표 3 2019년도 매매범위와 지불율

2019년 매매범위		지불율 (%)
미국 달러	엔화 환산	
0-49,999	0-5,299,894	10.6
50,000-99,999	5,300,000-10,599,894	9.9
100,000-499,999	10,600,000-52,99,894	9.7
500,000-999,999	53,000,000-105,999,894	9.0
1,000,000 이상	106,000,000 이상	8.8

자료: USDA

지불액의 예: 생산자 A의 대상 작물의 2019년 매출이 7만 5,000미국 달러(795만 엔=8,281만 4,250원)일 경우, 지불액은(4만 9,999달러(529만 9,894엔=5,520만 8,396원)×10.6%)+(2만 5,001미국 달러(265만 106엔=2760만 5,854원)×9.9%)=7,775달러(82만 4,150엔=858만 5,077원).

2020년에 사육을 시작한 생산자 및 2019년 매출 실적이 없는 생산자에 대한 지불액은 신청 시점에서의 2020년 매출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생산자가 가공, 포장 등을 할 경우 매출 중 부가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상 외가 된다.

#### [수급 자격]

1개인 또는 1법인을 전체 품목 합계의 지급 한도는 25만 달러(2,650만 엔=2억 7,605만 원)이다. 기업 유한 회사, 유한 조합의 신청자는 종업원이 농업 경영에 노동력과 경영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 상한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제1탄 및 제2편의 CFAP의 대상이 된 신탁과 부동산이 상한 증가로 고려되게 되었다.

또 신청자는 평균 조정 총소득(AGI)이 90만 달러(9,540만 엔=9억 9,377만 원) 미만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AGI중 75%이상이 농업, 목장 또는 임업 관련 활동의 수입이라면 AGI에 관한 제한은 제외된다. 이어 “현저한 침식을 받기 쉬운 토지 및 습지 보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번 공개에 맞추어 퍼듀 장관은 “미국 농업계는 높은 회복력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COVID-19 대유행으로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가와 목장주가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 연료, 섬유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COVID-19의 영향에 대해서, 농가, 목장주 및 농업 단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요구에 맞는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참고: 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미국)]

- 農務省は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対象農作物を追加（海外情報（令和2年8月21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
- 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者への支援策の詳細を発表（海外情報（令和2年5月26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9.html)
- 米国農務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表（海外情報（令和2年4月28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海外情報（令和2年4月17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 2. (2020년 10월 7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제2탄에 대한 농업 단체의 반응

2020년 9월 18일에 공표된 제2탄의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CFAP2)에 대한 미국의 농업 단체의 주요 성명은 다음과 같다.

### 아메리칸 팜 뷰로·페더레이션(AFBF)의 듀발 회장

집이나 목장 주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시장의 수요가 소멸하는 상황을 지켜봤다. 현재는 식량 공급 불안은 침착하고 있지만, 미국의 농가와 목장 주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COVID-19가 언제 수습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아직 무역상의 불균형과 악천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이번의 지원 방안은 농가와 목장주가 생활을 유지하고 그들이 미국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마지막 희망이다.

### · 전미 육용우·생산자·쇠고기 협회(NCBA) 이단 레인 정부 담당 책임자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육용우·생산자에 USDA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첫 CFAP는 COVID-19 발생 직후의 중요한 잠정 지원으로 실시됐다. 안타깝게도 올 봄의 전례 없는 공급망의 붕괴와 전체 농가의 경제적 혼란으로 육용우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우리는 전국의 농가와 목장 주인들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 새 없이 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USDA의 썬더 장관 그리고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육용우, 생산자를 확실히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때까지 의회와 협력하고 나선다.

#### · 전미 칠면조 협회(NTF) 조엘 블런든 베르거 회장

우리는 전미의 칠면조 생산자의 요망에 대응하여 준 트럼프 대통령과 썬더 장관에게 감사한다. 이번 CFAP2에서 새로 지원 대상으로 칠면조가 추가된 것은 COVID-19에 의한 시장의 혼란과 외식 산업에 의한 수요의 상실에 시달리는 칠면조 생산자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답하여 준 것이다. CFAP2가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어 향후에도 칠면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 · 전미 원유 생산자 연맹(NMPF)의 짐·무르한 회장 겸 CEO

CFAP2는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허덕이는 많은 가족 경영의 낙농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번의 지원 방안은 모든 낙농가의 요망에 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의 가을부터 겨울까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다음 COVID-19에 관한 연방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농업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는 것을 연방 의원에게 요청한다. 공급망의 붕괴와 유제품의 오래 보존하기 어려운 성질은 특히, 낙농가는 연간 손실을 입고 있다. 5년간 지속된 유가의 침체에 시달리던 낙농가는, 겨우 유가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던 중 COVID-19에 따른 휴업 상태에 빠졌고, 지금도 경영 수치 개선에 고생하고 있다. 또 USDA가 이번의 지원 방안에서 지불액 상한선을 없애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지불액의 상한은 유가의 하락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대규모 낙농가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 · 전미 옥수수 생산자 협회(NCGA)의 케빈 로스 회장

2020년은 농업에 있어서 어려운 해가 되며, 우리는 앞으로 추수철을 맞지만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우리는 튼튼한 기반을 되찾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들끼리를 달성하지 않아 이번의 지원 방안은 환영할 첫걸음이다.

이번 새로운 지원 방안을 지원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연장된 것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아 농업 단체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참고: 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 (米国)]

- 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対象農作物を追加 (海外情報 (令和2年8月2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
- 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者への支援策の詳細を発表 (海外情報 (令和2年5月26日発)) ,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9.html))
- 米国農務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表 (海外情報 (令

和2年4月28日發) ),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 (海外情報 (令和2年4月17日發) ),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 3. (2020년 11월 11일) 美 스마트브리프,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발표. - 간편식, 요거트, 식물성 대체식품, 부가가치 제품, 사업 확장 등-

코로나19로 유제품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 스마트브리프가 낙농산업에 자리 잡은 트렌드 5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간편식 수요 확대.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거트, 치즈스틱 등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간식 외에도 개별 포장된 포션 치즈 등 간편식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요거트 붐. 시장조사전문업체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요거트 수요가 늘어나며, 요거트 시장이 연간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저당 요거트를 비롯해 오트밀 토핑이 추가된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가 출시되고 있다.

셋째,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귀리, 콩 등 식물 기반 대체식품들이 출시되며 대체식품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장점만 뽑아낸 ‘하이브리드’ 우유가 출시되기도 했다.

넷째, 부가가치 제품 성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에 단백질,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보충제가 첨가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끝으로, 사업 확장. 대형 유업체들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식음료업체인 네슬레는 6개월 안에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겠다는 목표로 최대 규모의 유제품 및 식물성 대체식품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헤드라인뉴스,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smartbrief.com, 11월 11일자

### 4. (2020년 11월 12일) 美, 코로나 19 여파로 홈쿡 증가, 버터 판매량 급증, 랜드 오레이크스社, 2020년 총 버터 판매량 평년대비 20% 증가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식품서비스업의 영업중단 등으로 전 세계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유업체 중 하나인 랜드 오 레이크스는 기록적인 버터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요리하는 이른바 ‘홈쿡’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버터 판매량이 약 13만톤에 달하며 2020년 총 판매량은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당 업체 매출의 15-20%를 차지하는 식품서비스업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영양 건강 및 소비 동향,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1월 3일자

**5. (2020년 1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와 미국 봉쇄 확대 우려가 옥수수 시장 둘러싸고 계속되어, 옥수수 기반 에탄올 수요 억제 및 옥수수 주요 배출구인 가축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8%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16개월 만에 최고치인 나홀간의 상승세 끝에 시세차익거래로 하락했다. 남미의 건조한 지역에 내린 비는 시장을 압박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10억 8,900만 톤에 달해 무역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으로의 판매량 17만 4,700톤이 포함됐다. 무역업자들은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요의 추가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 사료 부족과 기록적인 국내 가격 상승에 직면한 중국은 이미 미국 옥수수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예약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와 미국 전역의 봉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옥수수 시장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다. 이 규제는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옥수수의 주요 배출구인 가축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옥수수 선물가격, 시세차익거래로 하락’, 해외곡물시장 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11월 20일 선물시장 현황, 2020년 11월 20일, ([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620/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620/page/1))

- 원문출처: 시카고곡물거래소

**6. (2020년 11월 24일) 美 낙농협의회, 교내 유제품 소비촉진 플랫폼 구축. 유제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및 자금 지원 등**

미국낙농협의회 Dairy MAX가 교내 유제품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Dairy MAX는 학생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Nutrition NOW’ 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급식 픽업서비스 고등학생 대상 커피바 운영, 방과 후 급식 등 다양한 유제품을 활용해,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마케팅 활동 및 자금 지원에 나섰다.

Dairy MAX는 8개주 900여 낙농가를 대표해, 산업발전 프로그램 운영 소비자 및 학교 대상 마케팅 실행 등을 통한 낙농산업 홍보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이 기관은 지난 7월부터 협력사들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코로나 19로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00여 학교 44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제품을 포함한 급식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통해 낙농업 유제품의 건강학적 효능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美 낙농협의회, 교내 유제품 소비촉진 플랫폼 구축 -유제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및 자금 지원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24일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1월 20일자

## 7. (2020년 12월 11일) 美, 드라이아이스 수요 급증으로 유제품 유통 비상 - 코로나19 백신 보관·운반으로 품귀 현상...치즈 등 유제품 유통에도 차질 예상

미국 전역에 코로나19 백신의 유통을 앞두고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급증하며 낙농업계는 유제품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초저온 상태로 보관·운반해야하는 코로나 백신의 특성상 이를 유지할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필요하다. 드라이아이스는 또한 치즈 등 상하기 쉬운 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수요 폭증으로 인한 품귀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네소타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수요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유통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위스콘신주 치즈 생산자협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매주 35만 톤의 드라이아이스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드라이아이스는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최근 수요가 크게 늘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위스콘신 주지사는 코로나19 구제특별법(CARES Act)을 통해 에탄올 생산업체에 최대 325만 달러(약 3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美, 드라이아이스 수요 급증으로 유제품 유통 비상-코로나19 백신 보관·운반으로 품귀 현상...치즈 등 유제품 유통에도 차질 예상’,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11일자

- 원문출처: news.yahoo.com, 12월 10일자

#### 8. (2020년 12월 14일) 美, 코로나19 위기에도 유제품 수출 10%대 증가. 아시아 수출증가가 원인...특히, 10월은 달러약세 등으로 증가세 두드러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수요증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으로 올해 미국산 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 10월은 중국의 수요증가와 달러약세가 맞물려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어났다. 특히 중국 수출은 2.6배나 늘어 수출증가를 견인했는데, 유청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탈지분유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로 지난 5월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버터 수출량도 31% 늘어나며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즈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시장으로 미국의 최대 탈지분유 수입국인 멕시코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여파로, 지난 10월 수입이 크게 줄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1월부터 10월까지 유제품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탈지분유가 22.2% 증가해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美, 코로나19 위기에도 유제품 수출 10%대 증가 - 아시아 수출증가가 원인...특히, 10월은 달러약세 등으로 증가세 두드러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14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2월 9일자

#### 9. (2020년 12월 21일) 미국,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으로 확대. 코로나 시국 큰 도움.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은 2019년 뉴욕주(New York State) 거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Amazon과 Walmart와의 협동으로 시작되었다.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국 농무부 장관은 SNAP 참여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식료품 구매에 SNAP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를 시작으로 앨라배마(Alabama), 아이오와(Iowa), 매릴랜드(Maryland), 네브래스카(Nebraska), 뉴저지(New Jersey), 오레곤(Oregon), 워싱턴(Washington) 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현재 뉴욕 주를 비롯하여 미 전역 47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Amazon, Walmart, ShopRite, ALDI, Wright's Markets, Inc., Woods Supermarket, The Fresh Grocer, Carlie C's, H-E-B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주(State)와 마트 정보는 “SNAP Online Purchasing Pilot” 에서 확인 가능하다.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가능 지역과 온라인 쇼핑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미국 농무부의 FNS(Food and Nutrition Service)는 향후 WIC(Women, Infant, Children)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온라인 식품 구매가 그동안 SNAP 참여자의 식품 접근성을 높여왔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향후 WIC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Amazon과 Walmart와 같은 대형마트와 더불어 각 지역 기반 슈퍼마켓 체인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협조를 조율 중인 슈퍼마켓 체인은 “SNAP Online Expansion” 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47개 주에서 전체 SNAP 참여자의 97%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1백만 이상의 가구가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식품 구매가 용이해졌고,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FNS는 향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을 WIC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네브래스카 주의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에 250만 달러의 연구비를 배정하여 WIC의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네브래스카의 오마하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식품과 관련된 과학 정보를 제공하며 어린이들과 가족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은 향후 3년간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WIC의 온라인 사용 시스템을 개발, 2) WIC의 온라인 사용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 3) WIC의 온라인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WIC을 시행 중인 최대 5개 주를 선정, 추가 연구비를 배정하여 테스트베드를 시행, 4) 향후 미국 전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개선

FNS는 현재 15개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으로 확대’,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50 2020년 12월 21일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 “USDA Expands Access to Online Shopping in SNAP, Invests in Future WIC Opportunity” (2020.11.2.), “SNAP Online Purchasing Pilot” (2020.12.14.), “USDA Launches SNAP Online Purchasing Pilot” (2019.4.18.) . 「식품·영양 서비스(FNS, USDA) 보고서」, (<https://www.fns.usda.gov/pressrelease/2019/fns-000319>,

<https://www.fns.usda.gov/snap/online-purchasing-pilot><https://www.fns.usda.gov/news-item/fns-001820>

## [캐나다]

### 1. (2020년 11월 30일) 캐나다 정부,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0만 달러 투자

캐나다 정부가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마리-클로드 비보(Marie-Claude Bibeau) 농업농산식품부 장관은 매니토바 주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농업 지원 기금 신청이 수락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농업인들이 농장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비보 장관은 “캐나다인들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농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우선 과제였다” 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매니토바 농민들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되었다” 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캐나다 자국 근로자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개인 보호 장비(PPE), 위생소, 작업소 및 기타 보건 안전 조치를 비롯하여, 거주지 및 작업소의 인프라 개선, 임시 또는 시장주택(농장 내 또는 외부)이 포함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6]」, 2020년 11월 30일자

- 원문출처: The Cattle Site, “Canadian government invests in additional COVID-19 protections for agriculture workers” (2020.11.15.)

## II. 남미

### [브라질]

#### 1. (2020년 12월 20일) 브라질, 코로나19로 막힌 남미 육로·수로 국경 개방 추진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폐쇄했던 남미 인접국과의 육로와 수로 국경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경제 협력 확대와 무역 활성화를 내세워 인접국 국경 개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미 국제기구인 남미발전포럼(프로수르)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말부터 남미 인접국으로부터 항공편과 육로·수로를 이용한 입국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항공편 입국은 지난 7월 말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9월 25일부터는 전면 허용했다.

(출처) 연합뉴스, ‘브라질, 코로나19로 막힌 남미 육로·수로 국경 개방 추진’, 2020년 12월 20일자 기사

- 원문출처: 브라질 뉴스포털 UOL

### Ⅲ. 유럽

#### [EU]

#### 1. (2020년 10월 1일) 농산물·식품 음료들, 영국 EU·FTA의 질 높은 합의 외에 BREXIT조정 준비금의 활용이 요구

유럽 연합(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인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sup>4</sup>),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sup>5</sup>), 유럽 농산물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sup>6</sup>)의 삼자는 연명으로 9월 24일 영국 EU자유 무역 협정(FTA)협상이 합의하지 못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로 고통을 겪는 농가, 농산물·식품사업자, 무역업자에게 궤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표명했다.

위 삼자는 2019년에는 교역액이 580억 유로(7조 3,660억 엔=76조 3,210.4억 원, 1유로: 127엔=1,315.88원<sup>7</sup>), EU와 영국의 무역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찾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사이의 공평한 경쟁과 EU측의 단일 시장의 완전 유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바다를 낀 영국과 EU간의 농산물·식품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동식물 검역, 식품과 사료 관리에 관한 영국의 규제 제도와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추가요건이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행 기간의 종료까지 4개월이 채 안 된 지금도 아직 질 높은 FTA에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50억 유로(6,350억 엔=6조 5,794억 원)의 BREXIT조정 준비금<sup>8</sup>을, 농산물·식품 부문을 위해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측은 9월 7일 영국 EU·FTA 협상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EU와의 협상시한을 10월 15일까지로 하며, 유럽 측은 제8차 협상 이후의 성명에서 EU는 영국의 주권을 존중한 해결책을 찾아 유연성을 보이고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측은

4)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국 2,300만 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되는 Copa(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및 2만 2,000농업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 Cogeca(유럽 농업 협동조합 위원회)에 의한 조직된 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 Copa및 Cogeca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5)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는 EU회원국 29만 4,000개 사업자와 470만 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EU최대 식품 제조업 단체. 거래량은 EU전농 산물의 70%를 차지한다.

6) 유럽 농산물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는 EU회원국 3만 5,000개 농산물 무역 사업자로 구성된 EU 단체.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청과물, 계란, 향신료, 절화 등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7) 2020년 11월 27일 원/유로 기준환율 적용

8) 유럽 이사회에서 2020년 7월 21일 EU의 차기 중기 예산 계획인 2021년~27년 다연차 재정 구조(MFF)에 아울러 MFF의 범위 밖에서 합의된 영국의 EU이탈에 따른 불의의 악영향을 받은 회원국과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금. 자세한 것은 향후 유럽 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중시하는 분야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영국이 ‘공평한 경쟁 조건의 확보’에 대해서 거절하고 ‘사회 환경, 노동, 기후에 관한 규제 유지’에 대하여 확약을 얻지 않는 등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임하고 있지 않다며, 2021년 1월 1일에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〇「合意なし」の場合「移行期間の延長」「代替案の措置を要求(海外情報 令和2年6月11日発) ,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 2. (2020년 10월 22일자) 유럽 위원회, 식육의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10월 5일 9월 중순까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향 등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sup>9)</sup>을 공표했다. 이 중 육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EU·영국 간에서는 장래의 교역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정인 것<sup>10)</sup>의,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조건임을 가정하고 유럽 연합(EU)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sup>11)</sup>를 포함하지 않는 EU 회원 2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 <쇠고기>

2020년 쇠고기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1.7% 감소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의 생산이 하향 안정된다고 가정하고 동 1.4% 감소 전망했다. 감산의 주요 요인은 COVID-19에 따른 도축장의 조업 정지 등의 영향 외 봄철의 건조에 따른 사료 공급 부족 때문에 미숙으로 조기 출하가 늘어난 것 등이 꼽힌다. 상반기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4, 5월의 도축 두수가 정체 내지는 감소한 것이나, 외식산업 영업 정지 등 COVID-19의 여파로 수요 감소를 받아 많은 회원국에서 감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그러나 외식산업과 관광업의 영업 재개에 따른 수요는 회복세에 있다. 이에 따르면, 5월 중순에 바닥을 친 소 도축 도매가격은 전년 수준까지 회복했다.

9)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 1회(12월)발표했다.

10)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 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11) 영국은 현재 EU 탈퇴(BREXIT)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쇠고기	2020년 (%)	2021년 (%)
생산량	- 1.4	- 1.5
수출량	1.0	- 4.0
수입량	- 10.0	0.0
소비량	- 2.1	- 1.2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2020년 쇠고기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1.0%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영국의 EU 탈퇴(BREXIT) 우려로 부터 영국을 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되는 한편, 아일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영국 이외로의 수출량은 동 12% 증가했다. 반면, 수입량은 외식산업 영업 정지 등에서 상반기 실적에서는 동 22% 감소했지만, 외식산업 영업 재개에 따른 수요에 회복세로 볼 때, 연중에는 전년 대비 10% 감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0년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 전망에서와 변함없이 전년 대비 2.1% 감소(일인당 10.4킬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 <돼지고기>

202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0.5% 증가를 낮추며 동 0.5%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스페인과 덴마크의 증가분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의 감소분이 웃돌아, EU 전체의 상반기 생산량은 동 0.9% 감소했다. 제3분기(7~9월)에는 좋은 돼지가 소비자 수요 회복, 최근 투자 효과 등으로 각 가맹국에서 증산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9월 중순에 독일 동부 국경에서 멧돼지에서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된 데 따른 국내에서 수입 금지 움직임이 있어, 이러한 것부터, 여름 초부터 안정되던 돼지 값에도 하락 압력이 나오고 있다<sup>12)</sup>.

돼지고기	2020년 (%)	2021년 (%)
생산량	- 0.5	- 1.0
수출량	2.0	- 10.0
소비량	- 1.1	1.0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2020년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10.0% 증가를 대폭 하향 수정하고, 동 2.0%의 증가를 전망했다. 상반기 수출 물량은 중국이 배증, 기타 베트남용이 늘어난 것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를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EU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인 독일에서 ASF가 확인되면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12) 野生イノシシで初のASF発生(ドイツ), [海外情報 令和2年9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7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71.html)

또 2021년에는 중국에서 국내 생산의 회복, 특히 수입 고기에 대한 식육 소비의 다양화로 전년 대비 10.0%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EU의 돼지고기 수출의 주목할 점은 독일의 ASF의 봉쇄의 성패와 무역 상대국이 지역주의<sup>13)</sup> 적용으로 독일에서 돼지고기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 여부이다. 또한 독일, 중국 및 아시아 수출의 감소분은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 2020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1인당 32.8kg)으로 내다봤다.

### <가금육>

2020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2.0% 감소를 올려, 동 1.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에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폴란드에서 투자의 진전이나 COVID-19에 의한 도시 봉쇄(락다운)의 다른 고기부터 가정 내 소비가 많은 닭고기에 대한 수요 시프트 등이 요인이다. 외식산업 영업 재개 및 소매에서 왕성한 수요에 힘입어 가격은 회복 기조에 있다. 한편 가금육 속에서도 판매처의 대부분 외식용인 닭고기 외(오리, 호로호로조, 비둘기, 메추라기)는 COVID-19로 외식산업 영업 정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감소가 2020년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가금육	2020년 (%)	2021년 (%)
생산량	1.0	1.0
수출량	- 6.0	1.0
수입량	- 12.0	6.0
소비량	1.5	1.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2020년의 가금육 수출 물량은 연초에 조류 독감이 발생한 폴란드로부터의 수입이 서서히 재개된다고 보이지만, 전년 대비 6.0% 줄어 2021년에는 완만한 증가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수출국인 영국 대상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동 20% 늘어난 필리핀을 제외한 여타 국가용이 동 5% 줄어 전체에서 동 8.5% 감소했다.

2020년의 가금육 수입량은 수입 닭고기의 주요 발송처인 외식산업의 수요 침체 영향으로 동 1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하여 회복이 예상된다. 또 2020년의 가금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1인당 23.7kg)으로 내다봤다.

기타, 본 전망에서는 양, 산양의 2020년 생산량, COVID-19로 외식수요 저하의 영향 등으로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의 전년 대비 1.5% 감소를 하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3.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13)지역주의란 질병 발생 국가라도, 청정성(해당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입하면 인정하는 것.

유럽 위원회는 보고에서 COVID-19의 농업·식품 부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이번 과제라고 밝혔다. 또 COVID-19에 의한 전자 상거래에 따른 식품 판매 증가와 지산지소의 진전 등의 식품 시스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한편, COVID-19 2차 파동 정도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이 조치하는 대책의 성패 등 변수가 많으므로, 2021년의 경기 회복 전망과 농업 시장에서의 영향 등을 내다 보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 3. (2020년 10월 22일자) 유럽 위원회, 원유·유제품의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10월 5일, 9월 중순까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향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sup>14)</sup>을 공표했다. 이 중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EU·영국 간에서는 장래의 교역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정인 것<sup>15)</sup>의,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조건임을 가정하고 유럽 연합(EU) 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sup>16)</sup>을 포함하지 않는 EU회원 2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 <원유 생산>

2020년의 원유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인 전년 대비 0.7% 증가를 상향 조정하고 동 1.4%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동 0.4% 감소)를 계속하되, 7월까지 목초 생육이 좋았던 것과 가격이 저 수준이 되어 농후사료 사용량이 증가한 점 등에 의해 1마리당 비유량이 증가(동 1.6% 증가)으로 알려졌다. 1~7월까지 이 경향이 현저하여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로 추이했다. 한편, 독일 북부, 폴란드 서부, 프랑스 북동부, 베네룩스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하계의 강우 부족과 평년을 웃도는 고온이 목초의 생육을 저해했고, 향후 몇 개월간 사료 공급(건초와 사일리지)에 악영향을 줄 전망으로, 연말에 걸쳐서는 원유 생산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14)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 1회(12월) 발표한다.

15)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 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16) 영국은 현재 EU 탈퇴(BREXIT) 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원유	2020년 (%)	2021년 (%)
원유 생산량	1.4	0.8
경산유 사육두수	- 0.4	- 0.8
두당 연간 유량	1.6	1.6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 <치즈>

2020년 치즈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인 전년 대비 0.3% 증가를 상향 조정하고, 동 0.7%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치즈의 소비량은 COVID-19로 외식 수요 저하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감소(동 0.2% 감소) 하지만, EU산 치즈에 대한 세계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치즈 수출량은 동 5.0% 증가 전망했다. 2021년에는 주문(포장)을 제공하는 외식 서비스나 전자 상거래의 증가로 치즈 소비량은 동 0.5% 늘어 그에 따른 치즈의 증산(동 0.5% 증가)도 예상된다.

치즈	2020년 (%)	2021년 (%)
생산량	0.7	0.5
수출량	5.0	3.0
수입량	2.0	0.5
소비량	- 0.2	0.5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 <버터>

2020년의 버터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인 전년 대비 3.1% 증가를 낮추어 동 2.5%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상승세에 있으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2020년의 버터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0% 늘어난 32만 톤으로 기록적인 수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외식 수요의 감소분은 가정에서 조리용, 제빵용 등의 작은 수요로 보완됐고, 2020년의 버터 소비량은 동 0.2%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치즈처럼, 주문(포장) 제공하는 외식 서비스나 전자 상거래의 증가로 전년 대비 0.4%증가로 새로운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버터	2020년 (%)	2021년 (%)
생산량	2.5	1.0
수출량	10.0	5.0
수입량	- 1.0	0.0
소비량	0.2	0.4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 <탈지분유>

2020년 탈지분유 생산량은 올해 7월 단기 수급 전망과 마찬가지로의 전년 대비 5.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EU역내 탈지분유 값이 COVID-19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있다. 2020년 탈지분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0%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과거 2번째로 높은 수준(8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지분유	2020년 (%)	2021년 (%)
생산량	5.0	3.0
수출량	- 10.0	5.0
수입량	- 5.0	0.0
소비량	- 6.9	0.5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유럽 위원회는 보고에서 COVID-19의 농업·식품 부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이번 과제라고 밝혔다. 또 COVID-19에 의한 전자 상거래에 따른 식품 판매 증가와 지산지소의 진전 등의 식품 시스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한편, COVID-19 제2차 발생 정도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이 조치하는 대책의 성패 등 변수가 많으므로, 2021년의 경기 회복 전망과 농업 시장에서의 영향 등을 내다보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 4. (2020년 11월 24일) EU, 코로나 위기, 부흥 패키지로 생산자 등에게 81억 유로(약 10조 5,874억 원) 지원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각료 이사회)는 11월 10일, 생산자, 식품 관계 사업자, 농촌 지역의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총액 80억 7,000만유로(1조168억 엔: 1유로=126엔=1,311.95원)의 부흥 패키지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2022년에서 2024년의 시행기간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졌다. 또 EU의 부흥기금에서 지출되는 총액 가운데 약 30%가 2021년, 나머지 70%가 2022년에 충당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각료이사회와의 교섭에서 유기생산자나 환경·기후변화, 애니멀 웰페어(동물복지) 대응에 충당하기 위해 37% 이상, 젊은 농업인의 창업과 농장에 대한 투자(위기에 대한 회복력,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화)에 55% 이상의 자금을 간신히 확보하

고, 친환경 생산에 대한 지원비율은 현 상황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생산자나 식품사업자가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를 할 경우 지원 상한선은 발생하는 비용의 75%로 인상됐고, 젊은 농업인의 창업 지원 상한액도 7만 유로(882만 엔=9,184만 원)에서 10만 유로(1,260만 엔=1억 3,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자금은 모두 EU로부터 제공받아 각국의 부담은 없다.

또한 실현을 위한 정식합의에는 2021년 1월 1일 차기공동농업정책 발효 전에 유럽 의회 및 EU이사회에서 관련규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ALIC), ‘コロナ危機、復興パッケージとして生産者等に対し81億ユーロ(約1兆円)の支援へ(EU)’, ALIC 홈페이지-畜産-海外情報-2020年([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2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21.html))

## [프랑스]

### 1. (2020년 11월 19일) Lecureur사,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병에서 회복되면서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중국에 프랑스 밀 수출 2020/21년 증가 전망

무역회사인 Lecureur는 프랑스의 몇 안 되는 승인된 공급 업체 중 한 곳이라는 지위에 힘입어 2020/21년 프랑스 밀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시즌의 큰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Lecureur의 상업 디렉터인 Thierry de Boussac은 “프랑스의 대중국 수출량은 7월~6월 사이에 1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2019/20년 전체와 같은 양에 달할 것” 이라고 글로벌 곡물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이 무역회사는 또한 프랑스가 2020/21년 시즌 하반기인 1월~6월까지 중국에 밀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수개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병에서 회복되면서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7월 이후 거의 120만 톤의 밀을 중국으로 선적했으며, 일부 무역업자들은 전체 시즌 동안 200만 톤의 밀을 생산할 가능성을 보았다.

농수축산사무국 FranceAgriMer는 올 시즌 유럽연합과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밀의 월별 수출 전망치를 685만 톤으로 15만 톤가량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Boussac은 올해 프랑스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지난 시즌 1,350만 톤이었던 프랑스 수출이 최대 7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데 말했다.

그는 “Lecureur가 시즌 하반기 동안 330만 톤의 수출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핵심 고객인 알제리가 지배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밀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알제리와 모로코, 서아프리카 등 다른 목적지에는 100만 톤의 프랑스 밀이 수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rench wheat exports to China could rise in 2020/21(중국으로의 프랑스 밀 수출은 2020/21년에 증가 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19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18](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18))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2. (2020년 12월 3일) 다논,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2천여 명 구조 조정. 2023년까지 연간 1조 3천억 원 규모 비용절감 계획 발표...유가공 부문도 일부 포함될 듯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온 다논이 구조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다논은 11월 23일 파리 본부 직원을 중심으로 총 직원의 약 2%인 2천 여명 감원 및 실적 저조 사업체 매각 제품 포트폴리오 축소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연간 10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구조조정 대상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생수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회사의 생수판매는 식당 폐쇄와 주요 기업들의 원격 근무 영향으로 17%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공 부문도 구조조정 대상에 일부 포함될 수 있어 보인다. 최고 경영자인 에마누엘 파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많은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며 지나친 경쟁과 혁신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 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성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고 재무책임자인 저겐 에세르는 “향후 3년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20억 유로(약 2조 6천억 원)의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식품시장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다논,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2천여 명 구조 조정’,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3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1월 23일

## 3. (2020년 12월 24일) 프랑스,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영국산 식음료 수입 중단. 식품업계, 성탄 시즌 큰 피해 우려...영국 정부에 역할 요구

지난 18일 런던을 포함한 영국 동남부와 동부지역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1%나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현재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국이 영국으로부터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긴급하게 내렸고, 프랑스는 현지시간 12월 20일

자정을 기해 48시간동안 영국으로부터 여행객은 물론 식음료를 포함한 화물 반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영국식품업계는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식품음료연합(FDF) 회장은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크리스마스 시즌 영국의 신선식품 공급과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고 하고, “영국 정부가 나서서 수입제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 을 요구했다.

EU 식품업계도 거들고 나섰다. FoodDrinkEurope 사무총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시에도 식품과 음료는 필수식품으로 인정돼 국경이동이 최소한의 제한만 받았다. 프랑스는 이번 제한 조치에서 식음료를 제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교역] 프랑스,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영국산 식음료 수입 중단 - 식품업계, 성탄 시즌 큰 피해 우려...영국 정부에 역할 요구’,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2월 24일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12월 21일자

## [영국]

### 1. (2020년 11월 9일) 英, 코로나 극복 위해 20년 만에 TV 우유 광고. 5-7월,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활용 우유 홍보...캠페인 기간 중 우유판매 11천 톤 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유제품 소비를 만회코자 영국 정부와 낙농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Milk Your Moments’ 캠페인이 상황리에 마무리됐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이 가장 심했던 5월 중순부터 12주간 진행됐던 이 캠페인은 우유와 유제품이 항상 우리 곁에서 생활의 일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테마로 영상물을 제작해 SNS,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했고, 특히 20년 만에 처음으로 TV로도 광고를 방영했다.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최근 발표한 캠페인 결과 평가에 의하면 주요 타겟층들이 낙농산업과 유제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식단에 유제품을 추가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21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계획에 없던 우유를 구매해 약 1만 1천여 톤의 우유가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행사로 진행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모금에서도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 원)가 모금되는 성과를 거뒀다.

Dairy UK의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낙농산업이 항상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유제품 판매증가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시장 및 마케팅 동향,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11월 2일

## 2. (2020년 11월 26일) 英 가정 배달우유 업체, 코로나 이후 수요증가로 유가공장 증설 - 3월 이후 매출 30% 증가...공장가동 인력 100여명 외에 우유 배달원 추가모집 中

스코틀랜드의 가정 배달우유 제조 유통 전문 기업인 McQueens Dairies가 최근 East Kilbride 지역에 100여명 규모의 유가공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는 코로나 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3월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신선한 배달 우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문이 30%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의 대표인 믹 맥퀸 회장은 “영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도 소비자들의 신선우유 수요가 늘면서 가정우유 배달사업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최근 12개월 동안 더욱 빠르게 늘었다고 하고, 주문량 소화를 위한 공장 준공으로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렸고, 최근 Stockton on Tees 지역에 새로운 물류시설을 오픈해 배달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고 말했다.

McQueens Dairies는 1995년 믹 맥퀸 회장이 설립한 가족 경영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와 영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신선 유제품 제조 및 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 외에 오렌지주스, 사과주스, 방목 달걀, 배달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고, 원료유는 낙농조합인 퍼스트 밀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英 가정 배달우유 업체, 코로나 이후 수요증가로 유가공장 증설 - 3월 이후 매출 30% 증가...공장가동 인력 100여명 외에 우유 배달원 추가모집 中’,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1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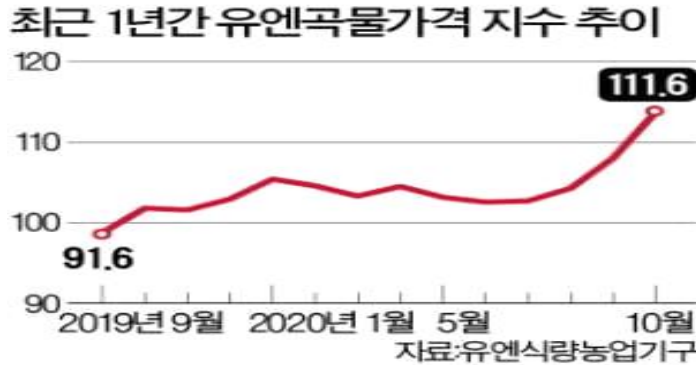
- 원문출처: scottishbusinessnews.net, 11월 23일자

## 3. (2020년 11월 21일)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국제 선물시장에서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기후가 급변해 작황이 타격을 받은 데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운송 등 공급 차질이 커진 탓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세계가 코로나19만큼 심각한 ‘기아 팬데믹(대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콩 근월물인 내년 1월 인도분 선물은 부셸(27.2kg)당 11.816달러에 거래돼 2016년 7월 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옥수수 12월물은 42.26달러, 밀 12월물은 부셸당 59.92달러 선에 손바뀜됐다. 콩, 밀, 옥수수는 지난 6개월간 가격 상승폭이 38.5%, 31.0%, 20.0%에 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유엔곡물가격지수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대비 7.3% 급등한 111.6포인트를 냈다.



### 이상기후에 곡물 생산 타격

국제곡물위원회(IGC)는 지난 2개월간 올해 세계 총 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총 400만t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는 최근 기후 온난화 여파로 각국에서 예상치 못했던 산불, 가뭄, 폭우, 태풍 등이 일어난 탓이다.

EU지구관측프로그램 연구기관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올해 1, 5, 9월은 각각 당월 사상 최고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러시아 중동 남미 호주 등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프레자 뱀보그 코페르니쿠스 선임 과학자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 발생 빈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례적인 기상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식량 수입·수출 1위인 미국은 지난 9월 전국의 약 43%가 가뭄을 겪었다. 해안 지역에선 미국 본토 상륙 기준 100년여 만에 가장 많은 열대폭풍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았다. 중서부와 북부 평원 일대엔 평년보다 약 한 달 이른 서리가 내렸다. 식량 수입 2위국인 중국에선 쌀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양쯔강 유역에 약 두 달간 기록적 폭우가 이어져 일대 농경지가 초토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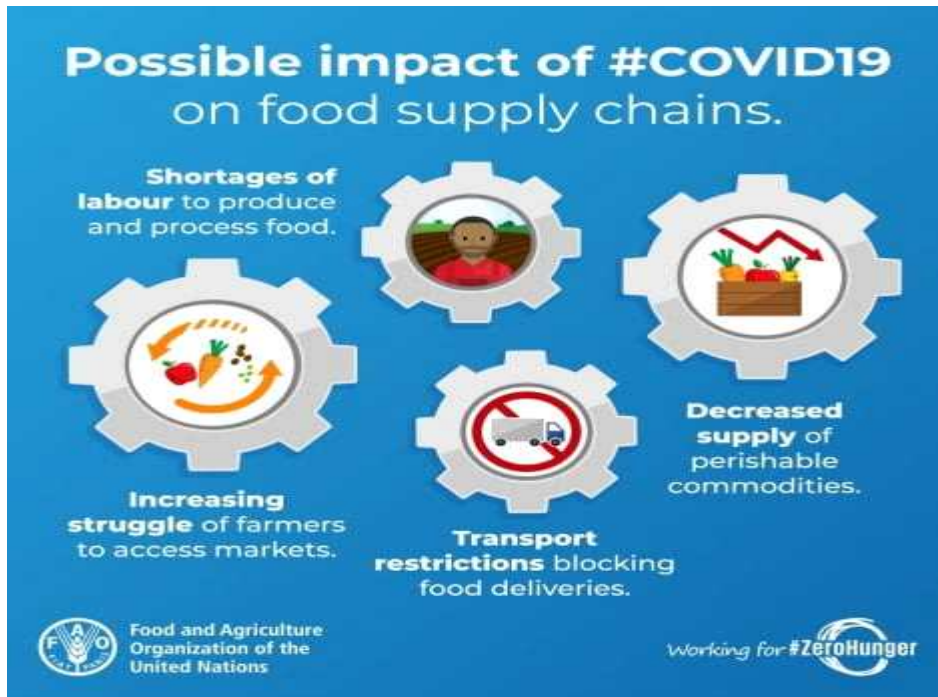
식량 수입 2위국인 중국도 대홍수로 식량위기가 악화됐다. 중국 쌀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양쯔강 유역에 지난 8월까지 약 두 달간 기록적 폭우가 이어져 일대 농경지가 초토화됐다. 기후변화는 아프리카 각국과 중국, 파키스탄 등에는 대규모 메뚜기떼도 몰고 왔다. 폭우 후 날씨가 더워지면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서다. 아프리카 사막메뚜기떼는 면적 1km<sup>2</sup> 규모 무리가 하루에 3만50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

### 코로나19로 수확·물류작업 차질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타격도 크다. 국가·지역 간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

이다. 수확철을 앞둔 지역도 이전처럼 외부에서 계절 노동자들을 대거 들이기 힘들어졌다. 유럽과 미국에선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커지면서 지역마다 재봉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물류도 큰 문제다. 방역 조치로 무역항에서 처리하는 항만 물동 속도가 느려졌고, 운송비는 올랐다. 세계 대두 수출 1위국인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항공이 운영 차질을 빚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물류비 인상에 따라 판로가 깨진 사례도 있다. 지난 4-5월 벨기에 감자 농가 일부는 마진이 안 난다는 이유로 창고에 쌓인 감자 판매를 포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식량 물류망이 망가진 탓에 세계 한쪽에선 식량이 썩어갈 때 다른 쪽은 굶주리기 쉬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곡류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이다. 트레이시 앨런 JP모건 상품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에 베풀었던 투자자들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상승장이 훨씬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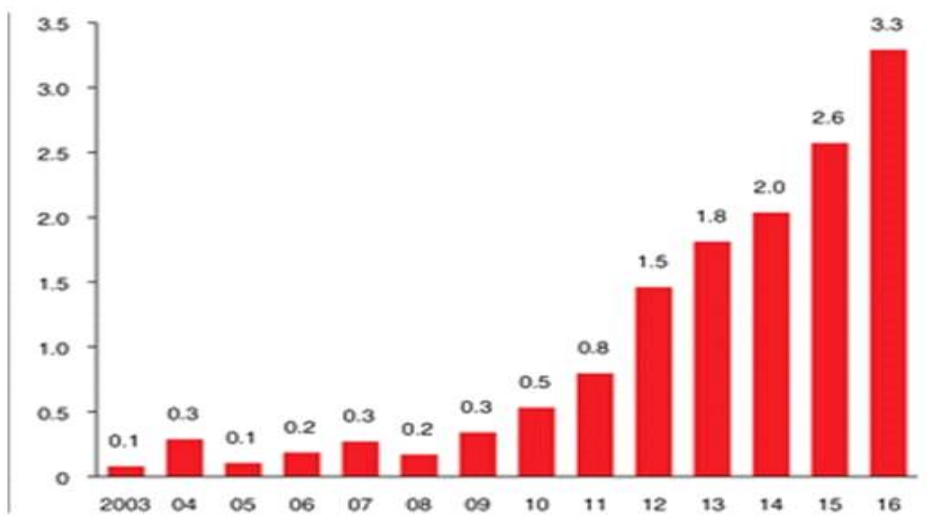
### 세계 각국 '내 나라 식량 안보 챙기기' 나서

곡물 가격이 요동치면서 세계 각국은 최근 ‘식량 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였던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의 식량 생산 방법을 강구하고 자체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농산물관 ‘탈(脫)세계화’ 움직임이다.

중국이 식량 안보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대표적 국가다. 14억 인구 식량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정치적 불안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중국은 그간 식량 공급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나 아시아 곳곳의 농지를 사들였다. 미국 농무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농림·어업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2006년 2억 달러(약 2,200억 원)에서 2016년 33억 달러(약 3조 6,500억 원)로 10년만에 10배 이상 뛰었다.

<중국의 농림어업 부문 해외 직접투자 급증세 (단위: 10억 달러)>



자료: 미국 농무부

###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중국 정부는 자국내 식량 관련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 경작지에 대해 나무 심기 등 다른 경제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엔 논밭을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경작지 비농업화 행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위성 등을 통해 경작지 현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홍수·가뭄 등을 거치는 와중에 자국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지난 8월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에서 2025년까지 밀, 쌀, 옥수수 등 3대 주요 곡물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2500만t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식량 안보에 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음식 낭비를 막을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 관련 발언을 한 첫 사례였다. 이에 중국 전역에선 대대적인 ‘잔반 금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경작지 비농업화 제재 조치도 이후 잇따라 나왔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내년 2월부터 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밀 공급량이 자국 내 소비량을 충족하고도 남지만, 내년 밀 작황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식에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 농업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보다 내수를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각국, 식량기업 사들이고 팜테크 대거 투자

중동 주요 산유국은 ‘오일머니’를 식량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식량 관련 기업 지분을 사들이고 팜테크(농업기술) 투자에도 나섰다.

### 각국 식량안보 확보 조치

중국	자국내경작지용도변경 금지, 경작현황감시
싱가포르	팜테크·식품분야 기업에 투자, 보조금 지급
UAE	곡물기업 지배지분 인수 실내 농업기술 개발 투자
사우디	인도 쌀 생산기업 지분 인수
아르헨티나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작 밀 상용화 승인
러시아	주요 식량 원자재인 밀 수출에 쿼터제 새로 적용

##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식량 소비량의 80%를 수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달 11일 세계 4대 곡물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루이드레뤼스의 지분 45%를 아부다비 국영기업 ADQ를 통해 인수하고, 같은 날 루이드레뤼스와 농산물 장기 공급 협정을 맺었다. UAE는 9월엔 팜테크기업 네 곳에 총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투자했다. 모래땅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관개 시스템이나 인공광선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사우디아라비아는 5월 말 사우디 국부펀드(PIF) 산하기관을 통해 인도 쌀 생산기업인 다왓푸드의 지분 29.91%를 사들였다. PIF는 “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에 따라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자국 내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도 3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도시농업,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생산 등 식품 연구 프로그램에 1억달러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식품청과 과학기술연구청 등은 이와 별개로 팜테크·식품 분야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량 소비량의 90%를

수입한다. 이를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목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자국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유전자조작(GMO) 밀에 대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승인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년간 GMO 밀 상용화 승인을 두고 자국 내 농민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다 최근 GMO 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정부가 승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식탁 물가도 영향...한국 식량안보는 OECD 최저수준

최근 심화된 식량 공급망 불확실성은 국내 식품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두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곡 가격이 높아지면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이 오른다.

밀 가격도 그렇다. 밀 가격이 장기간 오르면 제분업체와 식품업체가 라면·빵·과자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공산이 크다. 한국은 밀 소비량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시장 변화에 취약한 편이다.

최근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 새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량자급률은 사료용을 제외한 국내 농산물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 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를 기록했다. 2009년 56.2%보다 10.4%포인트 낮다.

사료용을 포함해 농산물 자급률을 추산하는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29.6%에서 21.0%로 8.6%포인트 하락했다. 곡물자급률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향세다. 작년엔 최근 10여년 새 최저치를 찍었다. 농식품부는 2013년엔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60.0%로 잡았다. 2018년 이를 55.4%로 하향조정했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려잡은 목표치도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작년 말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선 29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신용평가기관 피치그룹 산하의 시장조사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식량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먼저 타격을 받을 국가·지역으로 한국, 일본, 중국, 중동을 꼽았다. 피치솔루션스는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향후 식량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경제, ‘세계 곡물 공급망 깨져 가격 급등...글로벌 식량위기 '비상'’, 2020년 11월 21일자 기사

## [러시아]

1. (2020년 11월 20일)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 대형 마트의 폐쇄 가능성

## 이 존재 등 요인으로 러시아 식품 관련 물가 상승

러시아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수행한 식품 가격 실태조사 결과 감자의 가격이 24.2%, 당근 32.7%, 밀 21.2% 등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가파르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밀 및 감자의 경우 러시아 국민들의 주식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에 해당해 이러한 가격 상승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수입 물가가 환율 하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식품 물가 변동표(2020년 하반기)

(단위: %)

제품	인상률	제품	인상률
양고기	0	밀	+21.2
닭고기	-0.5	설탕	-1.5
소고기	+0.6	소금	+0.6
돼지고기	-0.3	쌀	+13.8
생선	-4.3	밀가루	+10.6
양배추	-1.4	흰빵	+0.7
감자	+24.2	해바라기유	+9.7
당근	+32.7	버터	+0.9
사과	+20.2	우유	+2.9
계란	+0.5	차	+4.3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 대형 마트의 폐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 밝히며, 마트 폐쇄 시 러시아 식품 물가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대형마트들이 각종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경우, 경제 및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 마트를 폐쇄할 방침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Mr. Sergey Belakov 러시아 소매기업협회 대표는 “현재 상황이 소매업자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고 강조했다며, Mr. Artem Zeyev 러시아 Amarkets 분석부장은 현재 러시아 내 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소매업자들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특히 곡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미 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약 25~30%가량 식품에 대한 물가가 인상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경우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밀 수출국이지만 밀 가격에 대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감자의 경우 벨라루스 및 이집트 등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 환율에 따른 상승압력이 더욱 더 거세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 스크코보 에너지 센터(Skokovo Energy Center)의 분석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천연자원 수요 감소로 인해 러시아가 앞으로 수 년간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수요 감소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도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11월 초 1달러가 80루블을 돌파해 2014년 경제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루블화의 가치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데, 11월 6일 러시아 내 확진자가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러시아 내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회복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루블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입 물가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러시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현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1.18.)

- 원문 출처: 각종 언론 보도 (NGK55 등) 및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 2. (2020년 12월 1일) 러시아 12월말 자금 주도 전매와 함께 코로나로 제한하였던 수출 쿼터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선물가격 하락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7%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세계 최대의 곡물 공급국인 러시아가 이달 말 자금 주도 전매와 함께 수출 쿼터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했다.

러시아 농업부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한 곡물 수출 쿼터 규모를 1,500만 톤에서 1,750만 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ABARES(농업자원경제과학국)은 2020/21년 호주의 밀 생산량 추정치를 2,891만 톤에서 3,117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Sovecon(농업컨설팅업체)은 러시아가 2020년 8,530만 톤에서 2021년에는 8,920만 톤에서 8,280만 톤의 밀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30만~60만 톤에 대한 무역 기대치에 맞춰 최근 일주일간 미국 밀에 대한 수출 검사량을 50만 2,788 톤으로 보고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 선물가격, 러시아의 수출 쿼터 인상 소식에 하락’,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 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선물시장 현황, 2020년 12월 1일([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637/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637/page/1))

- 원문출처: CBOT

## 3. (2020년 12월 11일) 3분기 수입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전분기 20년 만에 가장

## 큰 폭으로 감소한 후 4.8% 감소,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물 수출 쿼터와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러시아는 Vladimir Putin 대통령의 식량가격 인상 비판에 따라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물 수출 쿼터와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Putin 대통령은 수요일 빵, 밀가루, 설탕, 해바라기유의 가격 상승에 대해 관리들과 시장 참여자들을 비난했고 Mikhail Mishustin 총리는 목요일 러시아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Mishustin은 정부 회의에서 “국가원수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품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Mishustin은 이 문제에 대해 목요일 늦게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러시아인들의 3분기 수입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전분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후 4.8% 감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빵과 밀가루, 해바라기유 값이 각각 6.3%, 12.9%, 23.8% 올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올해 밀 수확량이 많았지만 국내 가격이 올랐다.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림부는 앞서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물 수출 쿼터를 1,750만 톤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아직 가능한 밀 수출세 규모나 쿼터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소식통은 말했다.

러시아도 이달 중 국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해바라기유에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들 중 2명은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1월부터 해바라기 종자와 유채류에 대한 수출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설탕과 해바라기유의 최고가 또한 소매체인점, 생산자, 그리고 주 정부의 독점 금지 서비스 사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weighs wheat export tax, quota after Putin criticises food price rise(러시아는 푸틴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난한 이후 밀 수출세, 쿼터에 무게를 두고 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11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58/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58/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4. (2020년 12월 14일) Putin, 코로나19와 수입 감소 가운데 빵, 밀가루, 설탕 등 가격 상승 대해 관리와 시장 참여자 비난, 밀 수출세 및 할당량 고려, 최종 결정은 아직

러시아 관리들은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명의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

에 금요일 말했다. 정부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세금이 톤당 약 2,000루블(약 27.3달러)으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25유로(30.30달러)의 세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밀, 호밀, 보리, 옥수수 등의 해외 수출에 대한 임시 쿼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전에 제안된 모든 곡물에 대해 1,750만 톤으로 쿼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터 내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세는 0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소식통은 이 쿼터 내에서 밀 수출품에 대해 톤당 25유로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물량이 쿼터를 초과할 경우 곡물에 대한 세금이 관세 가격의 50%까지 인상되지만, 톤당 100유로 이하로 인상될 것” 이라고 말했다.

Vladimir Putin 대통령의 식량가격 인상 비판에 따라 러시아도 국내 해바라기 기름과 설탕 가격 상한제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은 “여러 부처에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다양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밀에 대한 통일된 수출세 규모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밀이 지분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 소식통은 덧붙였다.

농업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단일규모 세금은 승인될 경우, 러시아가 수년 전 밀 가격이 급성장할 때 사용했던 포물러 기반 세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지난주 말 러시아 유럽 지역 밀 3등급의 국내 가격은 톤당 1만 5,950루블(215달러)이었다. 흑해항에서 단백질이 12.5% 함유된 밀의 수출가격은 FOB 기준으로 톤당 252달러였다.

Putin은 COVID-19 사태와 러시아인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번 주 초 빵, 밀가루, 설탕, 해바라기유의 가격 상승에 대해 관리들과 시장 참여자들을 비난했다. Mikhail Mishustin 총리는 러시아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 부처에 12월 1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농업건설팅 Sovecon은 러시아의 2021년 밀 수확량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8,100만 톤에서 7,68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1 = 73.2470루블) (\$1 = 0.8255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considers wheat export tax and quotas, no final decision(러시아, 밀 수출세 및 할당량 고려,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14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62/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6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5. (2020년 12월 14일) 밀 선물가격,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코로나, 수입 감소로 물가 상승 등 이유 수출 억제 가능성으로 상승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3.0%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가 공급 전망을 예상보다 하향 조정하고 러시아 최고 공급업체가 수출 억제 조치를 검토함에 따라 급등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톤당 2,000루블(약 27.3달러)의 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농업컨설팅업체 Sovecon이 2021년 작황 전망치를 10년 만에 최악의 작황 상황을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미 농무부 목요일 월간 보고서에서 미국과 세계 밀 재고 전망을 예상보다 많이 줄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 선물가격,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수출 억제 가능성으로 상승’,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 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선물시장 현황, 2020년 12월 14일  
([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660/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660/page/1))

- 원문출처: CBOT

#### 6. (2020년 12월 1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판한 후 밀 수출에 세금 부과, 코로나19와 국민 소득 감소가 배경-밀 수출세 내년 2월 15일~6월 30일 까지 톤당 30.4달러, 같은 기간 동안 1,750만 톤 곡물 수출쿼터에 추가

러시아는 월요일 정부 회의에서 Vladimir Putin 대통령이 비판해 온 국내 식량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밀에 수출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Maxim Reshetnikov 경제부 장관이 말했다. 수출세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톤당 25유로(30.4달러)로 책정된다. 수출세는 같은 기간 동안 1,750만 톤의 곡물 수출 쿼터에 추가 될 것이다.

미국의 밀 선물은 월요일 러시아의 제재로 미국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거의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컨설팅업체 Sovecon는 “이는 밀의 국내사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산 밀 수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ovecon은 또 일부 농가가 비축물량 판매를 2021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2021/22년 마케팅 시즌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Sovecon은 이번 세금으로 러시아의 2020/21년 밀 수출량이 2,300만 톤 감소해 3,780만 톤에서 3,880만 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1월 러시아산 밀의 수출 가격이 2~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올해 밀 수확량이 많았지만 국내 가격이 상승했다. Putin은 지난 주 식량가격 상승을 비난했다. 3분기 러시아 소득이 4.8% 감소하고, COVID-19 사태 등으로 전분기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급락과 맞물린 것이다.

관리들은 러시아 설탕과 해바라기 석유 생산업체들도 소매업체들과 함께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는 해바라기유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사탕수수 수입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 = 0.8227유로) (\$1 = 72.9700루블)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to tax wheat exports after Putin criticises rising food prices(푸틴 대통령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판한 후 밀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러시아)’,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15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64/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6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7. (2020년 12월 24일) Putin, 12월 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러시아인들의 수입을 압박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파스타 가격 비판 이후 듀럼밀 생산 촉진

러시아는 Vladimir Putin 대통령의 파스타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이 있는 후 파스타와 쿠스쿠스 생산에 사용되는 듀럼밀 생산량을 2025년까지 18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농업부가 밝혔다. Putin은 12월 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러시아인들의 수입을 압박함에 따라 식량 가격의 상승을 비판했다.

관리들은 곡물 수출 쿼터와 밀 수출세를 포함한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들의 목록으로 대응했다.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올해 약 70만 톤의 듀럼을 생산했는데, 이 듀럼은 그 나라의 소비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수요일 농업부가 발표했다.

러시아는 올해 곡물을 많이 수확했으며 파스타 가격 상승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수입이 감소하며 모스크바보다 가난한 지역의 러시아인들은 “해군식 마카로니”를 먹고 있다고 Putin은 12월에 말했다. 러시아 농민들은 생산비 증가로 인해 올해 듀럼 가격을 인상했다고 농업부는 말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듀럼의 생산량은 파종 면적과 신기술 사용량의 35% 증가로 인해 2025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농업부는 덧붙였다. Putin은 지난주 연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 결과 러시아의 빈곤율이 13.5%로 증가했다” 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to boost durum wheat output after Putin’s criticism of pasta prices(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파스타 가격 비판 이후 듀럼밀 생산 촉진)’,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 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선물시장 현황, 2020년 12월 24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80/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80/page/1))

## [루마니아]

### 1. (2020년 11월 30일) 루마니아 정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분야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정부 특별 지원책 마련

루마니아는 전통적인 농업 강국으로 총 농경지가 1,470만 헥타르로 그 중 1,000만 헥타르 정도가 경작이 가능한데, 이는 EU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 등에 이어 총 6위 규모이다. 농업분야가 루마니아 국가총생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커다란 농업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인구중 92.6%가 가족단위 영세농으로 낮은 생산성과 관개시설 미비, 농기계 부족 등 관련 인프라 부족. 이로 인해 농업 발달이 뒤쳐져 있으며, 농업과 식품분야에 연간 50억 유로 이상 수입되는 등 무역수지 적자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분야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특별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농업 분야 정책은 농업분야 지원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EU기금인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대부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지원 항목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과 농촌지역 개발지원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산업 피해를 보조하기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이 크게 증가될 것인데, 그 중 피해가 큰 축산과 원예 부분의 보조금이 증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보면, 정부재정에서 소 축산 농가에 8.7백만 달러, 돼지 축산농가에 29.2백만 달러, 가금류 축산 농가에 29.2백만 달러를 특별 지원 승인하였고, 그 외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EARFD)에서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은 축산, 채소, 과일 지배 농가 등을 위해 180 백만 달러 추가 지원이 승인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6]」, 2020년 11월 30일자

- 원문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루마니아 농업 산업 현황” (2020.11.17.)

## IV. 오세아니아

### [호주]

#### 1. (2020년 12월 1일) 호주산 밀 수출증가는 캔버라가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대규모 사업 중단 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서 회복에 도움 될 것

호주의 주요 상품 예측 담당자는 이로운 비가 내리면서 생산 예상치를 10% 가까이 올린 후 호주 농부들이 이번 시즌에 3,000만 톤 이상의 밀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농업 자원 경제 과학국(ABARES)은 2020/21년 시즌 밀 생산량이 총 3,117만 톤으로 9월 전망치인 2,891만 톤에서 증가해 2016/17년 호주 역대 최고치인 3,180만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BARES의 전무이사 Steve Hatfield-Dodds는 “9월과 10월의 강우량은 성장 주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고 말했다. 이미 전국 많은 지역에서 수확되고 있는 대규모 작물은 지난달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기준가격인 Wv1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산 밀의 수출증가(보통 품질 때문에 수요가 높음)는 캔버라가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대규모의 사업을 중단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ARES는 보리 생산량 추정치를 9월 전망치(1,120만 톤)보다 높은 1,196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보리 재배 농가의 전망은 어둡다. 중국은 올해 호주산 보리 수입품에 80.5%의 반덤핑과 반보조세를 부과해 사실상 10억 달러 무역을 중단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ustralia increases this season’s wheat production estimate by nearly 10%(호주는 올 시즌 밀 생산량을 10% 가까이 늘림)’,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곡물 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1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38/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38/page/1))

- 원문출처: Reuters

## V. 아시아

### [중국]

#### 1. (2020년 10월 6일자) 국내 최대 거래 규모의 농산물 전문 도매 시장, 국산 돼지 거래를 재개(중국)

중국 베이징 시에 있는 신발치 도매시장에서는 시장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0년 6월 13일부터 영업을 정지했다<sup>17)</sup>. 채소, 과일 등 일부의 거래는 순차적으로 재개하던 중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월 28일 22시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도 재개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냉동 돼지고기 거래는 모두 금지되고 국산 거래만 한다. 또 수산물의 거래는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재개된 돼지고기 도매시장은 두개의 독립된 지역으로 나뉜다. 제1도매시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하고, 판매자는 아홉개의 베이징 시 지정 식육공장, 구입자는 주로 베이징 시내 민간 소매시장, 민간 포장 마차 경영자, 정부기관의 식당 경영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제2차 도매시장은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으로 180개 점포가 들어서고 있어 구매자는 주변의 호텔 음식점이 중심이다.

본 시장에 의하면, 재개 당일 밤, 680마리의 돼지고기가 들어왔다. 이는 COVID-19유행 전 약 4분의 1이지만, 향후에는 취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베이징의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1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15.html))

#### 2. (2020년 11월 9일) 中, 코로나19 계기로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현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가공식품 관련 46개 조항 재개정 계획

코로나19가 야생동물 소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내 식품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2020 국가 식품안전 전략계획(2020 Food Safety National Standards Project Strategy)’ 를 새롭게 마련했다.

17)新発地卸売市場および営業停止の詳細は「畜産の情報」2020年9月号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国内最大取引規模の農産物専門卸売市場、職員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発症を受け、営業を停止(中国)」’, (<https://www.alic.go.jp/content/001181559.pdf>) P.93을 참조 바란다.

중국 국가건강위원회(CNHC)가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국가계획(national initiative)은 현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및 가공식품 등과 관련해 28개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 18가지를 신설하는 등 총 46개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이중 12개는 영양성분 및 특별식에 관한 조항이고, 가공식품 관련 4개 조항, 식품 첨가물 14개 조항, 그리고 나머지는 식품 검사 및 식품오염 분야로 알려졌다.

영양성분(nutrition) 및 특별식(special dietary foods) 분야는 식품의 영양 강화 성분인 해조류 추출 요오드, 락토페린(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항균물질), 1, 3-Dioleoyl-2-Palmitoyl Triglyceride(모유 지방 대체 중성지방) 등에 대한 기준 강화와 알츠하이머 환자용 대체영양식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 신설이 포함된다. 가공식품(processed foods) 분야는 빵류와 캔류 등에 대한 기준강화와 건조과일 및 야채 등에 대한 기준 신설, 소금, 설탕, 오일 함량 기준 대폭 강화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은 캔류 등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영양 건강 및 소비 동향, 2020년 11월 3주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11월 3일

### 3. (2020년 12월 8일) 中, 수입산 냉동식품에 핵산검사 의무화 추진 - 수입산 냉동식품을 통한 코로나 유입 차단 목적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산 콜드체인(저온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nucleic acid test)를 요구하고 나섰다. 핵산 검사란 DNA 또는 RNA를 분석해 질병존재여부를 알아내는 것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진단 외에도 식품 농산물 등의 검사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입산 냉동식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콜드체인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시장규제국(SAMR)은 향후 거래되는 수입산 콜드체인 식품에 대해 핵산 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산 냉동식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핵산검사서 검역 및 소독 증명서와 추적 정보를 필히 제출해야하고, 수입된 콜드체인 식품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보관 판매해야 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中, 수입산 냉동식품에 핵산검사 의무화 추진’,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2월 8일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2월 3일자

#### 4. (2020년 12월 17일) 중국, 코로나 불구 올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이유, 음식낭비 방지, 양돈업 회복, 미·중무역합의 때문

올해 내내 전 세계를 뒹굴어붙게 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세계 곡물시장은 활황을 맞고 있다. 이유가 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패터슨 ING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고에서 “전 세계 곡물시장은 올해 활기를 띠었다”라며 “중국이 대두와 옥수수, 밀, 설탕 등 각종 곡물을 사들인 덕”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수치로 증명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의 대두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옥수수는 97%, 설탕은 28% 증가했다. 밀은 무려 164%나 늘었다. 특히 미국산 수입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에서 곡물 수요가 급증한 것은 왜일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음식 낭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정도로 중국 정부가 식량 안보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여름 내내 이어진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후 중국 정부는 곡물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식량 안보가 흔들리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중국 양돈업체의 성장이다. 중국의 돼지농장들은 2018~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올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했다. 당연히 동물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대두 수요도 확 늘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의 기록적인 농산물 수입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며 “중국의 양돈 농가와 미국 농민들은 점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도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정부가 올해 안에 약 366억 달러(약 40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부지런히 수입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0월 들어온 미국산 대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한 양의 2배 가까이 된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내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래 목표했던 만큼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1단계 무역합의 기간이 내년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내년에 더 많은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패터슨 애널리스트)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중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중국의 목표는 ‘자급자족’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입에 의존하는 일은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중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올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이유’, 2020년 12월 17일자

**5. (2020년 12월 24일) 중, 시진핑 주석 지시에 따라 음식낭비 먹방에 벌금 1700만원 부과하는 식품낭비금지법 공개**

중국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제정 중인 식품낭비금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먹방’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2일(현지 시각)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반식품낭비법’ 초안 심의를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와 국영기업은 접대·행사 등에 제공되는 음식량을 ‘표준화’ 해 낭비를 막고 각급 정부는 매년 음식 절약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인터넷 방송은 금지되며 위반자는 1만 위안(약 170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1,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식당이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에서 낭비되는 음식은 도시 지역에서만 매년 1,750만 톤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음식 낭비 방지법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번 법안은 시 주석의 지시로 마련됐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입법을 통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올해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6억 9,9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지만, 중국 정부는 코로나·홍수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 법엔 시 주석의 개인적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열여섯 살부터 7년간 중국 산시(陝西)성 농촌 토굴에서 생활했다. 문화대혁명으로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아버지 시중권이 반동분자로 몰려 감금되자 다른 도시 청년들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 식량 부족으로 거친 잡곡을 먹어야 했고, 고기가 귀해 어렵게 구한 돼지고기를 날로 먹기도 했다.

(출처) 조선일보, ‘어린시절 배 고팠던 시진핑 “음식낭비 먹방, 벌금 1700만원”’, 2020년 12월 24일자

**6. (2020년 12월) 주요 식량작물류 가격 동향, 옥수수, 대두 가격 코로나 19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로 상승**

(개황) 쌀 품목에서는 조생장립종, 만생장립종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밀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옥수수와 대두는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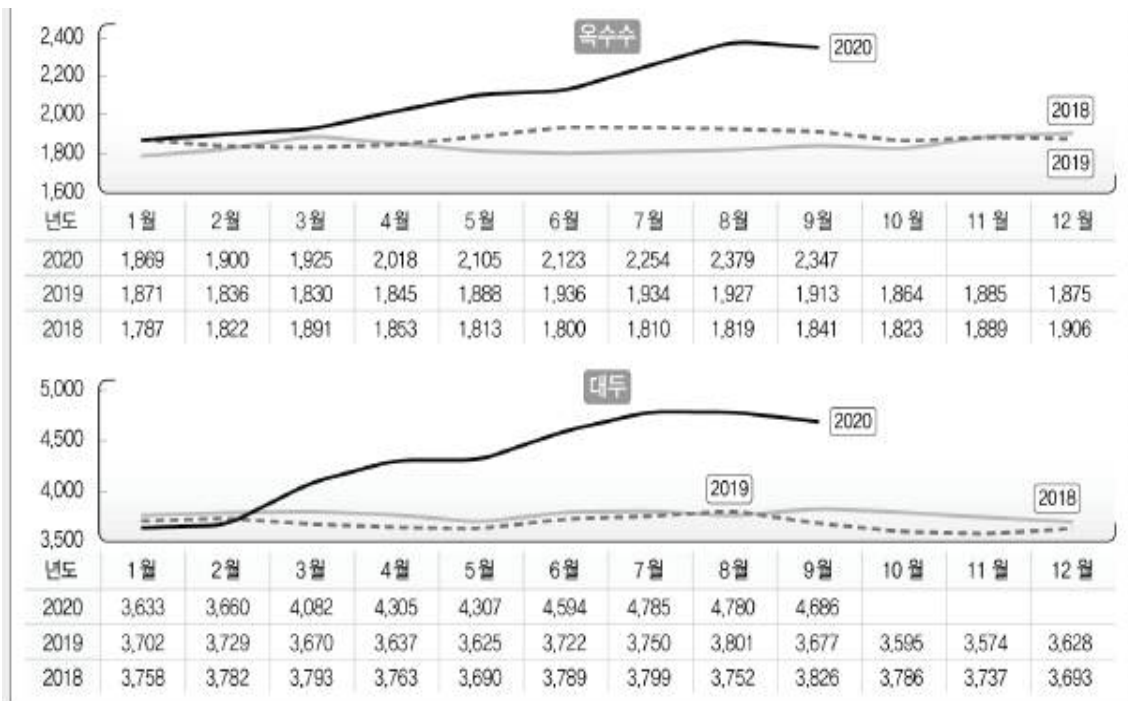
(밀) 분기 내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2,425위안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6.9% 하락하였다. 장기 추이를 보면, 2019년 5월 이후 전년 대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다 11월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0년 5, 6월 잠시 하락 이후 다시 완연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옥수수) 분기 내 가격이 등락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2,327위안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20.9% 상승하였다. 장기 추이를 보면, 2017년 3월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짐.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800~1,900위안 수준에서 등락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로 인해 급등하여 8월 2,379위안을 기록하였다.

(대두) 분기 내 가격이 등락한 가운데 평균 가격은 톤당 4,750위안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26.9% 상승하였다. 장기 추이를 보면, 2013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함. 2018년과 19년 3,700위안 수준에서 등락하다 2019년 11월 3,574위안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3월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로 급등하였다.

그림 2 옥수수 및 대두 가격 추이(2018.1~2020.9)

단위: 위안/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 13권 3호(2020년 가을호), 2020년 12월 (<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94f429f8-fb60-44fc-a7cb-c37c3ebc7456>)

[일본]

1. (2020년 11월 30일) 코로나19 감염 확대, 농업 분야 Society5.0 실현, △농업·농촌 과제와 농촌 재평가 필요 등에 대한 대응 위해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중간정리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2020년 11월 18일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중간정리를 발표하였다. 토지개량사업은 농업 생산력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농업용수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농업생산기반을 정비·관리하는 사업이다. 5년마다 장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2021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다.

┃ 토지개량사업 방향성 ┃

구분	산업정책 관점	지역정책 관점	통합적 관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평지 및 중산간 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업을 성장 산업화하여 농업·농촌의 소득향상 추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인구 고령화·감소에 따른 집약기능 감소 우려</li> <li>식량 안정공급 기반이자, 다원적 기능을 지닌 농촌에서 다양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고용기회, 생활 인프라 확보 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화된 농업 수리시설, 강도 높은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생산 및 농촌 생활을 지탱할 인프라 강화, 지속성 강화 필요</li> </ul>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농업 성장산업화</li> <li>① 핵심경영인을 위한 농지 규모화·단지화,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li> <li>② 고수익작물로 전환, 산지(産地) 형성을 통한 산지 수익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농촌 진흥</li> <li>③ 소득과 고용기회 확보, 농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 정비, 농촌을 지탱하는 새로운 활동 및 활력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강화</li> <li>④ 빈번·심화하는 재해에 대응한 배수시설정비·저수지 대책 등을 통해 농업·농촌 강화</li> <li>⑤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 수리시설 전략적 보전관리와 유연한 물관리</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소득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농촌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수리시설 강화, 지속성 강화</li> </ul>

<농업·농촌 정세 변화>

현재 농업·농촌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농업 분야 Society5.0 실현, △농업·농촌 과제와 농촌 재평가 필요, △대규모 재해 심화 및 증가, △TPP, EU·일 EPA, 미·일 무역협정 발효 등을 통한 글로벌화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농업·농촌의 목표 실현>

농업인과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이 식량 안정공급,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농촌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개량사업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일상 실현, △Society5.0 실현, △SDGs 공헌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①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 스마트농업 도입, ②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 ③ 농업·농촌 다양성 배려, ④ 재난 방지 및 감소 대책 강화, ⑤ 기후 변화, SDGs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응 등이 그 것이다.

### <토지개량사업 방향성>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지역 정책의 관점에서 타 관련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재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토지개량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중간정리(1)’,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47. 2020년 11월 30일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新たな土地改良長期計画の概要(中間とりまとめ案)” (2020.11.18.),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nousin/bukai/r02\\_1119/siryou.html](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nousin/bukai/r02_1119/siryou.html))

## [인도네시아]

### 1. (2020년 11월 2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비축 물량을 늘리기 위해 쌀 비축저장고 신규 건설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한 저장고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식품안전청(Food Security Agency)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비축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연말까지 5,000개의 식량 저장창고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5,000개의 식량 저장고를 신설했다.

식품안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도네시아 농가가 수확 시점에 최대한 많은 쌀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며, 농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간·국가간 물류가 마비되자

식량 안보 강화 계획을 세우고 저장 창고 건설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새 저장 창고를 확보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거세지자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금번 수확기의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1,760만 톤인데 비해 내수 소비량은 1,000만 톤 정도로 초과 생산량이 약 7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다. 상반기 수확량의 경우 1,6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따라서 초과 생산이 발생할 때 가능한 많은 양의 쌀을 비축해야 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충분한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2020.11.19.)

- 원문 출처: Jakarta Post 등

## [네팔]

### 1. (2020년 11월 30일) 네팔, 코로나19로 네팔 기업의 61%가 완전히 폐쇄되어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일자리 잃어

네팔 당국에 의한 봉쇄령이 4개월간 시행된 이후 라스트라 은행(Rastra Bank)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네팔 기업의 61%가 완전히 폐쇄되어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팔 기업은 평균적으로 22.5%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특히 호텔 및 레스토랑 부문에서는 40%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된 직원은 전체 직원의 30.5%에 달했다.

네팔 기업은 평균적으로 직원 급여의 18.2%를 삭감했지만, 호텔 및 레스토랑 부문에서의 급여 삭감률은 36.4%에 달했으며, 교통 부문에서는 급여의 31.2%가 삭감되었다. 또한, 네팔 기업의 77%가 임대료나 대출 이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한 현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코로나19에서 네팔에서 약 160만 개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팔에는 전체 근로자의 약 80.8%에 달하는 57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6]」,  
2020년 11월 30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2020.11.23.), (The Himalayan Times 등)

## [북한]

1. (2020년 12월 20일)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요약)

### **북한은 농업생산의 취약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자, 비료, 비닐 등 농자재, 장비·설비, 연료 및 전력 등 농업투입재 공급도 부족하다.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수리부품 공급이 부족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올해 소비 측면에서 북한 식량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봉쇄조치로 북중무역이 어려워지면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이 감소하고, 무역 감소 및 노동자 송금 축소로 식량 구매를 위한 재정 기반도 악화되었다. 북한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일반주민의 사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득 감소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식량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훨씬 큰 악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코로나19 사태는 공급 측면에서 방역조치 등 농업생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내년도 식량위기 우려 증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 제한조치가 취해져 농업생산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제한된다. 북한 내 공장가동을 저하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수입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공급이 대폭 감소하였다.

8~9월 여러 차례 수해가 발생하면서 내년에 소비할 식량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심각하다. 이동 제한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

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북한에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의 삼중고에 처해 있는 북한은 내년 식량사정이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

올해 불안한 식량수급 상황에도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식량 사정이 최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노동력 투입 감소와 비료 공급 감소가 발생하였고 수해로 인한 심각한 농경지 피해 등이 겹치면서 올 가을 식량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KREI농정포커스」 193호(2020년 11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Ⅵ. 아프리카

### [아프리카]

#### 1. (2020년 5월 15일) 아프리카도 코로나19에 이커머스 뜬다... 음식 등 주문 폭발적. 봉쇄령 ‘집콕’ 에 온라인 배달 눈떠...남아공, 술·담배 빼 전자상거래 전면 재개

서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사는 세이두 살은 시내 변화가에서 온라인으로 배달된 음식 포장위에 소독제를 뿌린다. 연구원인 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설탕, 우유, 커피 같은 기초 식료품을 온라인 주문으로 샀다. 살은 “‘홈 딜리버리’는 접촉도 안 하고 줄도 안 서도 된다”면서 온라인으로 세 번만 클릭하면 배달이 되고 배달비도 단지 2천 세파(CFA)프랑(약 4천 원)이라고 말했다.

세네갈도 다른 많은 나라처럼 이동을 제한하고 상점과 시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됐다. 세네갈의 라피도스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슈퍼마켓, 베이커리, 약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 회사 간부인 모하메드 바디안은 “홈 딜리버리가 90% 올랐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이커머스의 정확한 데이터는 구하기 어렵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일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은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주미아는 그동안 높은 영업비용 때문에 장기 생존 가능성이 의문시됐다. 주미아는 그러나 13일 매출보고서에서 3월 초 코로나바이러스 규제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다만 일부 국가는 또한 공급면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트디부아르의 이 회사 상무인 프란시스 두파이는 “주문이 폭발적”이라면서 현재 수요가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이 같은 다이내믹이 작용하고 있다. 이커머스 회사 원카트의 공동창업자인 린턴 피터스는 AFP에 “수요가 막대하게 늘었다”면서 “지난 두 달 새 영업이 500% 증가해 수요에 맞추기 위해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마침 14일 주류와 담배만 빼고 모든 이커머스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남아공은 지난 3월 27일 봉쇄령 돌입 이후 겨울옷과 음식 등 필수품만 온라인 판매가 이뤄졌다. 아프리카 온라인 판매는 수년간 상승세에 있다. 젊고 도시에 살며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인구와 함께 늘어나는 중산층에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이커머스는 아직 세계 다른 곳에 비해 뒤쳐져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천1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했고 이는 세계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온라인 쇼핑객도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등 세 나라에 집중됐다.

아프리카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달할 거리 이쁨도 부족하고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며 온라인 지불에 대한 의심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근을 꺼려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주미아 같은 토종 업체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기술을 적용해 자체 배달 기사들을 무리로 거느리고 있다.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전자상거래 식료품점 주인인 제로빔 음웨디항가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수 없으면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이전에 조심스럽던 소비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흥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격한 바이러스 소독 정책이 배달 영업에 장애가 되고 있고,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야간 통행금지 때문에 저녁 배달은 아예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배달은 지역사회 식당 영업에 불리하게도 작용한다.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 살미 시그웨다는 온라인 식자재 배달로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모두가 요리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아프리카도 코로나19에 이커머스 뜬다…“주문 폭발적“ , 2020년 5월 15일자 기사

## VII. 글로벌

### 1. (2020년 11월 19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농산물판 ‘탈(脫)세계화’ 움직임. 中, 3대 곡물 경작지 전용 불허…러, 밀 수출제한 쿼터 추진

세계 각국은 최근 ‘식량 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였던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의 식량 생산 방법을 강구하고 자체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농산물판 ‘탈(脫)세계화’ 움직임이다.

#### 中, 3대 곡물 경작지 전용 불허…러, 밀 수출제한 쿼터 추진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 경작지에 대해 나무 심기 등 다른 경제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올 9월엔 논밭을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경작지 비농업화 행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위성 등을 통해 경작지 현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홍수·가뭄 등을 거치는 와중에 자국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 정부는 정치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식량 안보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8월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식량 안보에 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내년 2월부터 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밀 공급량이 자국 내 소비량을 충족하고도 남지만, 내년 밀 작황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식에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 농업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보다 내수를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식량기업 사들이고 팜테크 대거 투자

중동 주요 산유국은 ‘오일머니’를 식량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식량 관련 기업 지분을 사들이고 팜테크(농업기술) 투자에도 나섰다.

식량 소비량의 80%를 수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달 11일 세계 4대 곡물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루이드레퀴스의 지분 45%를 아부다비 국영기업 ADQ를 통해 인수하고, 같은 날 루이드레퀴스와 농산물 장기 공급 협정을 맺었다. UAE는 9월엔 팜테크기업 네 곳에 총 1억달러(약 1150억원)를 투자했다. 모래땅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관개 시스템이나 인공광선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월 말 사우디 국부펀드(PIF) 산하기관을 통해 인도 쌀 생산기업인 다왓푸드의 지분 29.91%를 사들였다. PIF는 “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에 따라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자국 내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도 3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도시농업,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생산 등 식품 연구 프로그램에 1억 달러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식품청과 과학기술연구청 등은 이와 별개로 팜테크·식품 분야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량 소비량의 90%를 수입한다. 이를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목표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자국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유전자조작(GMO) 밀에 대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승인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년간 GMO 밀 상용화 승인을 두고 자국 내 농민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다 최근 GMO 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정부가 승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경제, ‘中, 3대 곡물 경작지 전용 불허…러, 밀 수출제한 쿼터 추진’, 2020년 11월 19일자 기사(<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1990111>)

## 2. (2020년 11월 19일) 코로나 시대와 대체육 부상

얼마 전 영국에서는 비건 정육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이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등 식육 가공품들은 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대체육 제품들만 판매된다. 이 같은 비건 정육점의 등장은 영국 내 탄탄한 대체육 소비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지만 대체육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19년 기준 각국의 대체육 시장 규모는 미국이 10억 달러로 1위를, 영국은 그 뒤를 이어 6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1천740만달러로 38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대체육이 낯선 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불일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발표된 식육가공품 시장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19년 7~20년 6월 30일)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대체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체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가 일반 고기의 건강 유해성이나 친환경, 동물복지 등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체육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ASF에 이어 올해 코로나가 발생한 가운데 대체육 관련 기사는 19년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 올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양돈 등 기존 축산업의 생산방식을 비판하는 기사도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는 기존 축산업 생산방식을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분명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이 변화했거나 혹은 코로나 시대를 파고든 공격적인 대체육 업계의 마케팅 결과일 수 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기존 양돈 등 축산업을 통해 생산된 고기에 등을 돌리게 만들 많은 씨앗(생각)들이 이미 코로나를 자양분삼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

을지 모른다. 양돈 등 축산업계에 덧 씌워진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고 근본적으로는 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코로나 시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출처)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 코로나 시대와 대체육 부상’, 2020년 11월 19일자(<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64>)

### 3. (2020년 11월 26일)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 에 대한 소비자 인식 크게 높아져, - 테트라팩 연차 보고서 67%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 불신

최근 테트라팩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psos와 공동으로 발표한 소비자 트렌드 연차 보고서 제 13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코로나 19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안전과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작년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아졌고, 50% 이상의 소비자가 가공업자의 책임이 식품 안전을 높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7%가 식품폐기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67%가 유통기한(best before)이 지난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39%는 냄새와 관능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분한다고 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트라팩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관심사와 트렌드가 바뀌어 식품 가공업계가 다양한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됐다”고 하고, 식품 포장 업계 또한 포장재 개선을 통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트라팩의 지속가능성 자문위원인 예일대학의 Dan Esty교수는 테트라팩의 이번 보고서는 인류가 인구 증가로 2050년까지 식품생산을 현재보다 70% 늘려야 하므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식품안전]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 에 대한 소비자 인식 크게 높아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25일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1월 19일자

### 4. (2020년 11월 27일) 식탁 위까지 파고든 팬데믹...’진짜 고기’는 안먹는다. 육류공장 코로나 직격탄 맞으며 공급망 ‘빨간불’, 소비자 인식 변화에 맥없이 쪼그라든 육류산업, 햄버거의 나라 미국서 떠오르는 ‘대체육 버거’

육류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대신 일반고기와 맛과 식감이 매우 유사한 식물 기반 대체육이 식탁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육류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식량 공급망이 무너진 데다 소비자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CNN 등 주요 외신은 최근 들어 식품업계에서 '식물 기반 대체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전했다. 대체육이 식탁 위까지 파고든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5월 미국과 유럽의 육류 공장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공장이 조업 중단을 선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육류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지구촌 인구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30%가량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에서 비롯된다. 특히 미국의 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1년 동안 미국인 1명 당 육류·가금류 소비량은 1960년 167파운드(약 75kg)에서 2018년 220파운드(약 99kg)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육류공장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며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 지난 5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의 스미스필드 공장, 미네소타주 워딩턴의 JBS포크 공장, 아이오와 워털루의 타이슨푸드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이들 3개 공장이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산량은 전체의 15%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은 때아닌 육류대란에 원활한 유통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는 “코로나19로 북미 전역의 소고기 공급업체 가공에 문제가 생기면서 육류 공급량이 부족하다”며 “일부 메뉴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햄버거의 나라' 미국에서 햄버거를 못 먹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육류산업은 맥없이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코로나19발 육류대란은 공급망에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나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육류 가공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천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이로 인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공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식품환경보고 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의 육류 가공공장은 코로나19 발생의 핫스팟으로 최소 3만5000명 이상의 육류 가공 작업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보였고,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장과 육류 가공 라인에서 잇따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면서 육류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육류 소비를 줄이고 대체육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주리대 식품농업정책연구소는 올해 미

국의 1인당 육류 소비가 2014년 이후 처음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적어도 2025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식탁 분위기가 바뀌었다. 팬데믹 충격으로 육류 공급망이 흔들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식물 기반 대체육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반고기는 갈 곳을 잃었지만, 일명 '가짜 고기'라고 불리는 대체육은 오히려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 코트라는 일반고기와 맛과 식감이 유사한 식물 기반 대체육이 식품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최대 육류 소비국인 미국의 식품업계에서는 식물 기반 대체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는 것.

### **“맥도날드도 출시표 던졌다“...판 커지는 대체육 시장**

특히 대체육 제조업체인 비욘드미트와 식품 스타트업인 임파서블푸드가 만든 일명 '가짜 고기'는 이미 주요 소매업체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거킹과 KFC 등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는 식물 기반 대체육을 사용한 메뉴가 이미 시장에 출시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앞서 세계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도 대체 육류 연구회사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발을 디뎠다. 유니레버는 2년 전 인수한 네덜란드 대체육 회사인 베지테리어 부처 등을 중심으로 대체육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네케 파버 유니레버 식품 부문 사장은 “식물성 고기·유제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대체육은 전체 육류·유제품 시장의 5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 맥도날드도 대체육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이달 초 맥도날드는 내년에 일부 매장에서 새로운 식물 기반 대체육 메뉴인 '맥플랜트(McPlant)' 라인을 시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종전의 고기 패티를 식물성 고기로 대체한 채식 메뉴를 추가하겠다는 것. 이안 보든 맥도날드 국제사업부 사장은 “맥플랜트는 버거와 치킨 메뉴, 아침 메뉴 등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식물 기반 대체육 메뉴는 요식업계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전 세계 육류시장의 판세를 바꿔놓고 있는 대체육 시장은 올해 들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올해 식물 기반 대체육은 전년 대비 15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31%나 폭증하기도 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뀐 소비자 인식이 변화에 한몫**

대체육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육류 가공업체를 덮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많은 공장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 미국의 육류 가공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새로운 핫스팟으로 자리 잡았다. 식품환경보고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류 가공 공장에

서만 최소 3만5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50명 이상이 숨졌다. 이처럼 육류 가공 공장에 집중됐던 코로나19 발생은 소비자의 육류 선호도를 낮췄고, 결국 식물기반 대체육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대체육 인기가 커지는 데는 생산이 비교적 쉽다는 것도 한몫한다. 일명 '진짜 육류'는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된다. 도축한 육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이다. 반면 식물성 육류는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이미 자동화가 많이 이뤄져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봉쇄 조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진짜 고기'에 대해 생산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축산업 컨설팅업체 컨스앤어소시에이츠의 스티브 마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돼지고기 생산능력의 32%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자문회사 어드밴스드 이코노믹 솔루션의 빌 랩 대표 역시 "미국의 소고기 생산능력이 14% 감소했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인 육류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진 반면 식물 기반 대체육에 대한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육류가공 시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거점으로 지목되면서 타이슨푸드, 스미스필드 푸즈 등 미국 대형 육가공 공장이 줄지어 문을 닫자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식품정보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1%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을 시도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육을 먹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존의 식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식재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식물성 대체 메뉴는 채식주의자만을 겨냥한 메뉴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실제 고기와 맛과 식감이 매우 유사하지만, 영양성분이 더 나은 식물성 대체육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아주경제, '[대체육 시대가 온다] ①식탁 위까지 파고든 팬데믹...'진짜 고기'는 안먹는다', '[대체육 시대가 온다] ②햄버거의 나라 미국서 떠오르는 '대체육 버거', 2020년 11월 27일자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6140935218>,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6141029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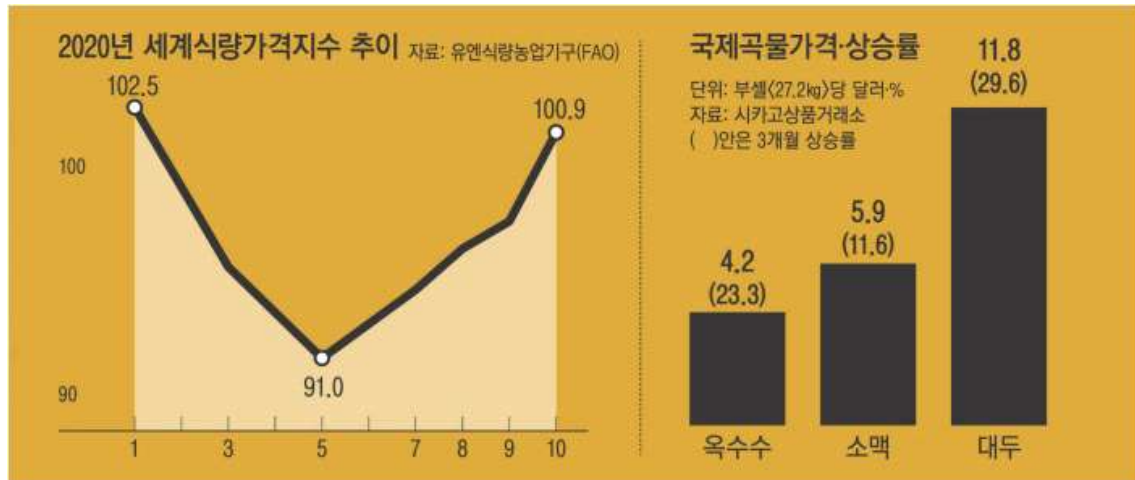
5. (2020년 11월 27일) 이상기후 앞친 데 코로나 덮쳐...세계 식량 '빨간불'. 유럽·북미 등 밀·옥수수 공급 줄고, 중국 등 신흥국 수요 여전히 증가식량가격 5개월째 '오름세' 지속. WFP "6개월 내 20개국 위기" 경고정부 "물량 확보돼 영향 제한적"

이상기후 현상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곡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일부 국가에는 내년 식량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3.1% 오른 100.9를 기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던 식량가격지수는 6월부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초기 수준에 근접했다.

밀, 옥수수, 보리 등 곡물 가격 상승세가 전체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0월 곡물지수(111.6포인트)는 1년 전에 비해 16.6%나 상승했다. 건조한 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유럽·북미·흑해 지역 겨울 밀 수출물량이 감소했고, 옥수수도 미국의 재고량이 줄어든 사이 중국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대두 역시 중국의 돼지 사료용 수요가 늘며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27.2kg)당 11.8달러로 최근 3개월간 29.6%나 급등했다.



가뭄·폭우·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면서 공급량이 줄었다. 공급이 감소한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충격도 전방위로 영향을 미쳤다.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공급속도가 느려지고 운송비는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각국이 '식량 안보'를 강화한 것도 가격 상승폭을 키운 요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량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는 22곳에 달한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세계식량계획(WFP)과 FAO는 향후 3~6개월 안에 20개국이 식량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경향비즈, '[타임라인]이상기후 옆친 데 코로나 덮쳐...세계 식량 '빨간불'', 2020년 11월 27일자 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1272122015&code=920100](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1272122015&code=920100))

**6. (2020년 12월 5일) 코로나 후폭풍...’지구촌 보릿고개’ 공포.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 경고 속, 각국 팬데믹 심화에 빗장 걸어, 식량 생산·공급 유통망 섰다운, 내년 전세계 기근 바이러스 위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조치로 이제는 ‘기근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지난달 외신들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와중에 빈곤 퇴치에 힘쓴 공으로 WFP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비즐리 총장은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며 곤혹스러워했다.

글로벌 식량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5월 91.0에서 5개월 연속 상승해 10월에는 100.9를 기록했다. 2014~2016년 평균치를 100으로 보는데 이를 넘어섰다. 곡물·설탕·유제품·유지류 가격이 오른 가운데, 특히 10월 곡물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7.3% 올라 111.6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것은 코로나19로 식량 생산과 공급이 모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령으로 차질을 빚었고 유통 채널은 멈춰 섰다. 살충제 등 농업 생산에 중요한 농약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가 하면 농업 대국인 인도에서는 수확한 토마토와 바나나를 전국 봉쇄령으로 운송하지 못해 썩게 두는 일마저 생겼다. 과일·채소·수산물 등 신선 식품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유통 대란에 휩싸였다.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각국이 보호주의의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잠그며 식량 가격은 급등했다. 베트남이 올 3월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미얀마·캄보디아도 쌀 수출제한에 나섰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밀 수출을 7월까지 금지했고 루마니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주요 밀 수출국도 가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혹한 등 이상기후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이미 상수로 자리 잡았다.

(출처) 서울경제 ‘[토요워치]코로나 후폭풍...’지구촌 보릿고개’ 공포 “ 2020년 12월 5일자(<https://www.sedaily.com/NewsView/1ZBKCEPU5B>)

**7. (2020년 12월 4일) GDT 유제품 시세 4.3% 올라-코로나 이전 95% 수준 회복. 7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서유럽은 버터 소폭 상승, 분유 소폭 하락**

지난 12월 11일 실시된 세계유제품경매(GDT)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4.3% 오르며 2회 연속,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지수는 1,012 포인트로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12월 1,065포인트의 95% 수준까지 회복됐다.

품목별로는 2회 연속 하락세를 보인 체다치즈가 톤당 3,734달러(약 411만원)로 2.4% 올랐고, 버터는 3.8%오른 톤당 3,986달러(약 438만원)를 기록했다

탈지분유도 톤당 2,889달러(약 318만원)로 올랐고, 전지분유는 톤당 3,182달러(약 350만 원)로 5%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시된 경매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며 많은 재고를 확보했음에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11월 20일자)은 버터는 2주전 대비 0.6% 올랐고,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각각 0.5%, 0.4% 내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GDT 유제품 시세 4.3% 올라 - 코로나 이전 95% 수준 회복, 「글로벌 낙농 뉴스」, 2020년 12월 4일자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2월 1일, USDA Dairy Market news, 11월 20일

## 8. (2020년 12월 7일) OECD 개발센터의 코로나19 극복 논의 동향

### <개요 및 논의 배경>

OECD 개발센터는 제6차 운영이사회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f the Governing Board)(2020.10.6.,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코로나 19 대응 및 회복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타격은 개발도상국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SDG 달성이 지연되고,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그간 이루어 온 성취가 최대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조세, 디지털, 무역, 지속가능 인프라 및 보건을 포함한 사회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교한 정책디자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OECD와 OECD 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OECD 개발센터는 이러한 OECD 활동이 개도국 및 신흥국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 <회복탄력성 있는 포용적인 사회 건설>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회복탄력성(social resilience)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 19로 여성들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여성은 비경제 종사자 비율이 높으며, 가정 내 폭력에 취약한 상

황이다.

사회적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해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초래된 보건 위기에 노출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정책(코로나 19 검사 지원 등)과 함께 위기상황에서 실직한 가계 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긴급지원조치 등을 실시한다. 특히, 여성 및 편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폐쇄 등으로 인한 교육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라디오,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을 도입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정책추진과 함께 글로벌 연대의식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회복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개도국은 재정압박에 직면해 있는바, 인도주의지원, ODA 등을 통해 회복탄력성 있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별국가의 전략과 다자적 지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긴밀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 부양정책과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국가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급속한 경제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각국은 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보건, 상업 분야의 디지털화, 양질의 인프라 구축, 녹색경제로의 전환, 전략적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의 성공은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특히 개도국의 재원 압박 해소 및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난 봄 G20 논의 이후 최근 UN의 코로나19 시대 개발재원에 관한 정상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등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투자와 부채 구제를 위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여국,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은행의 정책들이 상호 조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코로나19 동향 OECD 개발센터의 코로나19 극복 논의 동향’,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8. 2020년 12월 7일  
- 원문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OECD 개발센터의 코로나19 극복 논의 동향” (2020.11.2.)(출처: 제6차 OECD 개발센터 고위급회의, 2020.10.6.)

### 9. (2020년 12월 7일) OECD 경제전망 발표

#### <개요>

OECD는 2020년 12월 1일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 회원국 + G20 국가 대상으로 하며, OECD 중간 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 + G20 국가만 대상으로 한다. OECD는 2021년 말에는 백신·치료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0) △4.2, (2021) 4.2, (2022) 3.7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럽 등 회복세 약화, 향후 국지적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 하향 조정하였다(9월 5.0% → 금번 4.2%). 유럽 주요국은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2020.4/4분기 성장률이 다시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했으나,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 [전망] 세계경제는 2020년 △4.2%, 2021년 4.2%, 2022년 3.7% 성장 전망

2020년 세계경제는 2/4분기 극심한 침체 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각국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회원국 GDP가 여전히 위기 전 수준(2019.4/4)에 못미치는 가운데, 최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 주요국 3/4 GDP 규모(2019.4/4=100)는 (세계경제) △3.4, (OECD) △4.5, (유로존) △4.8, (한국) △2.5, (미국) △3.5, (프랑스) △3.7, (독일) △4.0, (일본) △4.1, (영국)△9.7로 보았다.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 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며, 다만 2021년 말 백신·치료제가 보급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은 국지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및 조정 폭은 (2020.9월 전망 → 2020.12월 전망, %): (2020년) △4.5 → △4.2 <+0.3%p>, (2021년) 5.0 → 4.2 <△0.8%p>이다.

##### [국가별 전망] 향후 국가별 회복속도는 검사·경로추적·격리시스템 등 방역조치의 효율성, 백신확보 신속성 등에 따라 상이할 전망

그간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검사·추적·격리’ 및 ‘개인방역’ 조치가 잘 구축된 아태국, 북유럽국에서 비교적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높은 실업률,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겠으나, 추가부양책 등으로 가계소비가 회복되며 2년간 3.2~3.5% 성장 전망

(일본)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2021년 2.3%, 2022년 1.5% 성장하겠으나, 미약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민간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

(유로존) 최근 봉쇄조치 재개 등으로 2020.4/4분기 △3% 수준 역성장하겠으나, 향후 코로나19 통제에 따라 완만히 회복 전망

(중국) 재정정책 및 부동산·인프라 투자 등이 견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겠으나, 기업 부채·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요인 상존  
 (여타 신흥국) 중국과 달리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높은 불평등도, 관광객 감소, 정책여력 감소 등으로 제한적 회복 전망

■ OECD 세계경제 전망(단위: %) ■

구분	2013~2019 평균	2019	2020e	2021e	2022e
실질 GDP 증가율					
전 세계	3.3	2.7	△4.2	4.2	3.7
G20	3.5	2.9	△3.8	4.7	3.7
OECD	2.2	1.6	△5.5	3.3	3.2
미국	2.5	2.2	△3.7	3.2	3.5
유로존	1.8	1.3	△7.5	3.6	3.3
일본	0.9	0.7	△5.3	2.3	1.5
비OECD	4.3	3.6	△3.0	5.1	4.2
중국	6.8	6.1	1.8	8.0	4.9
인도	6.8	4.2	△9.9	7.9	4.8
브라질	△0.5	1.1	△6.0	2.6	2.2
실업률	6.5	5.4	7.2	7.4	6.9
인플레이션	1.7	1.9	1.5	1.4	1.6
재정수지(GDP 대비)	△3.2	△3.0	△11.5	△8.4	△5.7
글로벌 교역량	3.3	1.0	△10.3	3.9	4.4

[정책권고] OECD는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 정책방향을 권고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재정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 권고, 특히 높은 공공부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만큼, 교육·보건 등 영역에 대한 투자와 불평등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OECD 「2020.12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G20국가 대상)(단위: %) ■

(전년 대비, %, %p)	2019년 실적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전망 시점				
세계	2.7	△4.2	4.2	3.7
G20	2.9	△3.8	4.7	3.7
유로존	1.3	△7.5	3.6	3.3
중국	6.1	1.8	8.0	4.9
<b>한국</b>	<b>2.0</b>	<b>△1.1</b>	<b>2.8</b>	<b>3.4</b>
터키	0.9	△1.3	2.9	3.2
인도네시아	5.0	△2.4	4.0	5.1
미국	2.2	△3.7	3.2	3.5
호주	1.8	△3.8	3.2	3.1
러시아	1.3	△4.3	2.8	2.2
사우디	0.3	△5.1	3.2	3.6
일본	0.7	△5.3	2.3	1.5
캐나다	1.7	△5.4	3.5	2.0
독일	0.6	△5.5	2.8	3.3
브라질	1.1	△6.0	2.6	2.2
남아공	0.2	△8.1	3.1	2.5
프랑스	1.5	△9.1	6.0	3.3
이탈리아	0.3	△9.1	4.3	3.2
멕시코	△0.3	△9.2	3.6	3.4
인도	4.2	△9.9	7.9	4.8
영국	1.3	△11.2	4.2	4.1
아르헨티나	△2.1	△12.9	3.7	4.6

OECD 「2020.12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OECD 회원국 대상)(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실질GDP 규모 (2019=100)	2022년 전망	실질GDP 규모 (2019=100)
전 세계	2.7	-4.2	4.2	99.8	3.7	103.5
<b>한국</b>	<b>2.0</b>	<b>-4.1</b>	<b>2.8</b>	<b>101.7</b>	<b>3.4</b>	<b>105.1</b>
노르웨이	0.9	-1.2	3.2	102.0	1.3	104.5
터키	0.9	-1.3	2.9	101.6	3.2	103.6
리투아니아	4.3	-2.0	2.7	100.6	3.1	101.1
아일랜드	5.9	-3.2	0.1	96.9	4.3	103.5
스웨덴	1.4	-3.2	3.3	100.0	3.3	103.3
폴란드	4.5	-3.5	2.9	99.3	3.8	103.1
미국	2.2	-3.7	3.2	99.4	3.6	102.9
호주	1.8	-3.8	3.2	99.3	3.1	102.4
덴마크	2.8	-3.9	1.8	97.8	2.8	100.3
핀란드	1.1	-4.0	1.5	97.4	1.8	99.2
이스라엘	3.4	-4.2	2.3	98.0	4.2	102.1
라트비아	2.1	-4.3	2.4	98.0	4.0	101.9
북셀부르크	2.3	-4.4	1.5	97.0	3.8	100.7
네덜란드	1.6	-4.6	0.8	96.2	2.9	99.0
에스토니아	4.9	-4.7	3.4	98.5	3.3	101.8
스위스	1.1	-4.7	2.2	97.4	3.4	100.7
뉴질랜드	2.2	-4.8	2.7	97.8	2.6	100.3
일본	0.7	-5.3	2.3	96.9	1.6	98.3
캐나다	1.7	-5.4	3.5	97.9	2.0	99.9
독일	0.6	-5.5	2.8	97.1	3.3	100.4
헝가리	4.6	-5.7	2.6	96.8	3.4	100.8
칠레	1.0	-6.0	4.2	97.9	3.0	100.9
슬로바키아	2.4	-6.3	2.7	96.2	4.3	100.4
체코	2.3	-6.8	1.5	94.6	3.3	97.7
벨기에	1.7	-7.5	4.7	96.8	2.7	99.5
슬로베니아	3.2	-7.5	3.4	95.6	3.6	99.0
아이슬란드	1.9	-7.7	3.0	95.1	3.2	98.1
오스트리아	1.4	-8.0	1.4	93.3	2.3	95.4
몰도바	3.0	-8.3	3.5	94.9	3.7	98.4
포르투갈	2.2	-8.4	1.7	93.2	1.9	94.9
프랑스	1.5	-9.1	6.0	96.4	3.3	99.5
이탈리아	0.3	-9.1	4.3	94.8	3.2	97.8
멕시코	0.3	-9.2	3.6	94.1	3.4	97.3
그리스	1.9	-10.1	0.9	90.7	6.8	96.7
영국	1.9	-11.2	4.2	92.5	4.1	96.3
스페인	2.0	-11.6	5.0	92.8	4.0	96.5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브리프 2 OECD 경제전망 발표’,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8. 2020년 12월 7일  
 - 원문출처: (한국)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0.12.1.)(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

10. (2020년 12월 10일) 금년 상반기 코로나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국 원유가격, 내년에도 이어갈 전망. 폰테라, 내년도 원유가격 하한선 상향조정...미국, 내년초 원유 선물가격 강세

금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국 원유가격이 내년도에도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회사인 뉴질랜드

폰테라는 12월 4일 내년도 소속농가들에게 지급할 원유가격 전망치를 기존 유고형 분 kg당 6.6달러-7.3달러(원유 리터당 370원-430원)에서 6.7달러-7.3달러(390원-390원)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폰테라의 실적개선에 의한 것인데, 2020-21시즌 1/4분기(6-8월) 실적(세전이익)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전분기 대비 40%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정은 중국의 시장 수요가 코로나 대유행 당시 경험했던 최저치에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보도했고, 폰테라 CEO는 “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수요 감소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최근 단기 수급 불균형으로 몇 차례의 이상급등을 보인 뒤 급락했던 원유 선물가격이 USDA의 버터와 우유 추가 구매 발표계획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3등급 우유 가격은 15.39달러/cwt(리터당 380원선) 수준이나, 내년 1월 선물가격은 16.13달러(400원), 2월 16.82달러(420원), 3월은 16.95달러(430원)을 기록하고 있다. 3등급 원유의 내년 평균 선물가격은 17달러/cwt(430원선)선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9년 11월 기록했던 20달러(500원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내년 주요국 원유가격 회복세 이어갈 전망’,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10일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2월 7일, dairyherd.com, 12월 7일

## 11. (2020년 12월 15일) 코로나 이후의 물류 변화와 대응방안

2020년 전례 없는 팬데믹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십 년간 전 지구적으로 진행된 글로벌화가 깨지면서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물류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전 세계적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대변되는 이런 큰 변화가 물류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 코로나19가 물류 산업에 가져온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은 WHO에 의한 팬데믹 선언을 가져왔으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북미를 거쳐 이제는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단 10개월여 만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 국가, 지역에 감염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물동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각종 규제, 지연, 비용 상승 등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결론에서는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운송 지연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선사들은 물류 합리화를 위해 선복량과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 실례로 한미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항만별로 다르지만 전년 대비 평균 20~30%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선적 일자 지연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방역 사정에 따라 특히 유럽 등지에서는 선적 이전에 국내 물류마저 원활치 않아 지연된 선적 일자도 못 맞추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 2) 검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 상승

각국에서는 코로나의 유입을 막고 방역 당국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려는 목적으로 확산 초기에 강력한 봉쇄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봉쇄 수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새로운 검역기준을 적용하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귀항하는 선박의 경우 14일간 접안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바도 있다.

## 3) 글로벌 공급망 변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글로벌화에 의해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국의 공장이 섰다운 되는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생산 지연, 중단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으로부터 지나치게 부품을 많이 의존해 온 산업의 경우, 더더욱 대처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를 다변화하고 또 일부는 국내로 공장을 유턴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의료, 방역물품의 경우가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때 생산의 혁신이라 간주했었던 JIT(Just in time, 적기공급생산)와 같은 무재고 운영을 지양하고, 전통적인 안전재고의 개념이 생산에 다시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국제물동량의 감소와 국내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4) 유통시장 온라인 집중

최근 5년 동안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업계는 2020년 한 해 동안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상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쇼핑의 주요 소비자인 20~30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주 고객인 50~60대 이상까지 빠르게 온라인으로 유입되면서 유통의 무게 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종말이 오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앞당겨질 것이고 한편으로는 직구와 역직구가 각광받으면서 특송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대폭적인 여객기 감

편으로 인해 화물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 중소 특송업체들은 도태되거나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에 M&A되는 운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

#### 5) 물류의 뉴노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해운 운임의 하락(현재는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과 선복 감축으로 인해 치솟고 있음.), 여객기 감편으로 인한 항공 운임 인상이 지속되고 이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추후에 경기가 회복되면 역설적으로 붕괴된 시스템으로 인해 해운 운임은 인상되고 항공 운임은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 6) 물류와 관련 산업의 통합

팬데믹으로 인해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면서 물류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지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수요는 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물류업과 포장, 통관, 창고업 등 관련 산업의 통합 기조는 있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출장을 가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원산지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업무도 대행하는 트렌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물류 운송사가 도착지에서 화주사 대신 화물을 직접 통관, 운송, 납품 심지어 수급까지 대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7) 물류 자동화, 무인화

한국내 코로나 19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창고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다.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유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던 동료들이 감염되었다. 더 나아가 고객들은 택배 상자가 감염의 매개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자동안내 차량)또는 무인 운반 로봇 등을 이용한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는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으며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숙련작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일정한 작업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콤팩트한 사이즈로 진화하고 있는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공간 효율화까지 꾀할 수 있다.

### 물류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 1) 장기 물류육성 정책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한진 사태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물류업 특히 해운업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산업이다. 경기에 따라 물동량은 변화의 폭이 크지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린다. 이런 물류업의 특성, 그리고 수출 지향적인 국내 산업구조를 생각하면 물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물류업이 위기를 잘 넘기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례를 들어 현재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물류기업들에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세계 혜택, 항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일시적 감면을 해주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각국의 검역 정보 공유

코로나의 감염 정도와 이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각양각색인 만큼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반응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결국 물류는 각국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이뤄지는 만큼 상호 간의 보다 긴밀한 정보 공유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중국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검역, 방역의 기준이 세워지고 이를 물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현 상황에서는 각국이 서로 요구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무역 당사국에 공유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염 관련 상황에 따라 물류 정책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플랜 A, B, C를 만들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 무역 관련 주체들이 물류 대란을 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제물류의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 쇼핑물 관련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필연적으로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를 이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단지 국내 물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가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거나 혹은 이후에 더 파괴적인 팬데믹이 인류에게 도전장을 던진다면 이때에는 인력에 의존해 과거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 CFS, 에어카고 터미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LCL, 에어카고로 선적될 화물들이 FCL 위주로 재편되면서 과도한 물류비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화물 운영에서도 자동화 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4) 노선의 다변화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각종 비관세 장벽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 등장과 소멸을 반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 기업들은 다양한 우회로와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Sea+Air, Sea+truck 등 복합운송의 사용빈도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화주사들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수의 물류기업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 5) 새로운 기회

기존 질서의 재편은 항상 파괴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작금의 어려

운 상황에서도 특수를 누리는 분야는 있게 마련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특수를 누린 방역물품들이 그 일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그 뒤를 이룰 것이다. 또 큰 흐름으로써 언택트 시대를 이끌 컴퓨터와 주변기기, 각종 IT장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의 흐름 역시 전통적인 거대시장인 중국,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고(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갈등은 이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 간 이동보다는 역내 무역이 늘어나는 경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회사들이 등장할 것이다.

## 미래 물류 산업의 방향

### 1) 물류에 필요한 혁신

지역별 물류 전문가를 육성하고, 물류 관련 자료 Data base 통합화 - AI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물류체제, 관련 법규, 관련 회사들을 잘 이해하고 국가별, 언어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별 육성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자동화,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유연 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미 러시아 정부는 2020년 초반부터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가 끌어내는 높은 생산성을 경험했고, 그 결과 주4일 근무제 도입이 장려되고 있다. 이는 실업자 감소 등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여가시간이 늘어 소비를 진작하고,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따라서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정태형(KYL LOGISTICS 카자흐스탄 법인장), '[기고] 코로나 이후의 물류 변화와 대응방안',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15일자 게재

- 원문출처: [inform.kz](http://inform.kz), [roboticsandautomationnews.com](http://roboticsandautomationnews.com)

12. (2020년 12월 17일) 코로나 시대 고려한 내년 식품트렌드, 건강기능성과 천연재료가 주도할 듯, 유업계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천연과일을 함유한 요거트 주목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뉴노멀 시대에는 과연 어떤 맛(flavor)과 색깔(color)이 식품 시장을 주도할까? 최근 낙농뉴스 전문지인 데어리리포터가 미국의 글로벌 식품기업인 ADM사의 수석 책임자와 올해 트렌드와 내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최근 트렌드 및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육체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의 바닐라와 단맛과 매운맛이 나는 향신료인 시나몬에 대한 인기가 꾸준하고 감귤류, 슈퍼과일(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과일)류와 산딸기(berry) 등 천연 재료의 맛과 색깔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트렌드가 유제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많은 유가공회사들이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요거트와 요거트 음료가 두드러지는데, 이들 제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유익균류), 프리바이오틱스(유익균의 먹이), 포스트바이오틱스(유익균의 대사활동으로 생성되는 건강에 이로운 물질)와 앞서 언급한 맛과 색을 가진 천연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다.

#### **내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

슈퍼푸드와 슈퍼과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맛과 색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의 건강상의 이점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슈퍼과일의 경우는 생기 넘치는 붉은색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엘더베리(elderberry)와 밝은 노란색과 독특한 맛을 가진 강황(turmeric)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내년 식품트렌드, 건강기능성과 천연재료가 주도할 듯’,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17일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2월 10일